



풍성한 결실 거둔 2011년

사진으로 본
辛卯年



〈서울 도화동 장학빌딩 야경〉



〈3월 18일, 정기총회 겸 제13회 총동창회 관악대상 시상식〉



〈10월 16일, 홈커밍데이 겸 가족 친목대회〉



〈7월 10일, 제8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



〈8월 24일, 2011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 수여식〉

2012년 壬辰年 신년교례회

새해를 준비하는 신년교례회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2012년 1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 회 비 : 없음
- 문 의 : 02)702-2233

* 한정된 좌석(최대 1000석 한정)과 식사 준비 관계로 2012년 1월 3일(화)까지 꼭 사전 예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악출추

어느덧 2011년이 저물고 있다. 지난 한 해는 정치위기, 경제위기의 해였으나 동창회는 많은 발전을 이룩한 해였다. 동창회는 林光洙회장과 임원들의 노력으로 개학원년을 1895년으로 50년 이상 올렸고, 장학기금을 확장해 20억 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 장학사업이 장기적,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장학빌딩을 완공해 연 40억원의 장학금을 마련하게 됐다. 또 연례행사인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대회를 가졌고 동문 바둑대회와 골프대회를 가져 동문간의 친목을 다졌다.

지지부진하던 서울대학교법인화법을 통과시키는데 도움을 줬으며 모교 관리 국유 재산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승계할 수 있게 하는 등 모교 발전의 기틀을 잡았다. 모교는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만

들어 법인 출범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수, 직원, 학생의 반발로 내년 1월 1일 법인화가 완성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법인화는 서울대학교의 자율성을 되찾고 세계의 대학으로 응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과다한 전파에 일부 학생들의 농성 등 불상사를 빚기도 했다.

모교는 법인화를 위해 발전기금 확충에

송구영신 - 2011년을 보내며

진력해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이자 수입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우리 동문 중 7천여 명이 장학빌딩 건립을 위해 4백억원을 모금한 것과 비교할 때 저조한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 동창회는 그동안 동창회의 숙원 사업을 완성한 만큼 앞으로도 모교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하겠다. 동창회는 모교 발전기금 모금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며, 모교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감축됐

던 입학정원을 환원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다.

모교는 그동안 학문적으로는 세계의 40대 대학으로 진입했으나 정부의 대학 평준화정책으로 SKY대학의 하나로 전락한 느낌이 든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모교의 입학정원을 대폭 늘려 졸업생 수를 배가해야 한다. 모교는 법인화를 계기로 구조조정을 단행해 보다 효율적인 학사운동을 해야 하며 국유재산 관리를 잘해 연구기금 확충에도 노력해야 하

겠다. 조국의 미래는 관악에 있다. 동문들은 명성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모교 발전에 기여해야 하겠다. 동창회는 모교 법인화 작업이 순조롭게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모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33만명의 동문들이 합심해 2012년에는 모교가 세계 20대 대학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金哲洙는설위원〉

느리나무광장

‘판대’ 딱지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눈앞이 핑핑 돌게 변화무쌍하다. 스마트폰에 깨알같은 글씨를 읽고,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도 힘에 겨운데 트위터, 페이스북에 쏟아지는 ‘여론’까지 읽자니 기진맥진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뒤집어엎었다는 팟캐스트 ‘나꼼수’를 2시간, 3시간씩 듣는 데는 진이 빠진다. 어디 그뿐인가? 개그프로도 가끔은 봐줘야 밥을 혼자 먹는 신세를 면할 수 있다.

얼마 전 어느 대기업의 CEO와 식사를 함께 했는데, 그는 기성 언론이 이들의 목소리를 너무 크게 다뤄 키워준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 분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 트위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사실 지극히 소수다. 트위터 망의 허브 역할을 하는 사람은 손꼽을 정도다. 이들이 마음에 드는 콘텐츠만 골라 리트윗(중계)한다. 대개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다. 보수 인사들도 몇 사람 있지만 자기만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소수라고 무시할 수는 없다. 젊은 층은 점점 종이매체를 기피한다. 자극적인 단문으로 날리는 트위터에서 정보를 얻고, 그것을 더 믿어버린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실의 왜곡이 일어나더라도 그 책임은 기성세대의 몫이다. 고통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이 사회에 있는지 없는지 그림자 같은 존재가

소수의 목소리라 더 소중한 SNS

金 鎮 國

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
본보 논설위원



돼 버린 소수자들의 외침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言路가 막히면 스스로 새로운 길을 뚫을 수밖에 없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소수의 목소리를 전하기에 더욱 소중하다. 일종의 ‘디지털 申聞鼓’인 셈이다.

얼마 전 대학별 졸업생의 취업률이 보도된 적이 있다. 졸업자가 3천명 이상인 대학 가운데 서울대는 취업률이 59.8%로 8위를 기록했다. 물론 이 수치가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는지는 의문이다. 대학원을 가고, 유학을 가는 숫자까지 생각하면 다른 대학들의 사정이 서울대보다 더 나을 게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청년실업이 사회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청년실업률 7%라는 것도 몸으로 느끼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가 전 세계에 퍼진 것을 보면 그것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모양이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럴 때일수록 고통을 호소하는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월가의 탐욕이 자본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한다. 서울대 동문들이 귀를 활짝 열어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밝아지지 않을까.

관악시단

겨울 강변에서

吳 龜 鎮(조선공학65-69)
조선건설턴트·시인

푸른 계절을 노래하던
시냇물은 마르고
물이끼 두른 수많은 냇돌이
하얀 얼굴을 내밀고 있다

여기가 백양나무 그늘에
물방개 버들치 떼 헤엄치고
산들바람에 개개비 지저귀며
흰 구름 머물다 가던 곳인가

멀리 정적에 싸인 골짜기는
비바람에 천둥 번개 내리치며
왜소한 인간의 오만을 꾸짖던
조물주의 장엄한 무대였던가

겨울 해 뉘엿뉘엿한 오후
버들강아지와 마른 풀 사이를
홀로 거닐고 있노라면

찬 바람 이는 강변은
텅 빈 막간(幕間)의 객석인가
눈 감으면 멀리서 울려 오는
봄 노래의 환청이여.

동문칼럼

인류 역사는 지난 2백여 년 동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다. 20세기 들어서에는 과학기술문명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높은 경제성장을 이뤘다. 그 결실로 현대인들은 한정 없이 물질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편의적이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됐다. 이러한 물질적인 혜택은 천연 자원과 에너지, 특히 화석연료의 무제한 개발, 이용 그리고 수많은 인공물질, 예컨대 농약, 프레온가스, 각종 합성물질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런데 농산물 재배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한 후 자연으로 버려진 화학물질들은 자연의 정화작용과 대사작용을 초과해 분해가 다 되지 못 할 정도로

치유, 회복할 것인지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 현상의 제 문제를 되돌아보고 자성하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치유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써 새로운 학문인 힐텍(heal-tech)분야를 바탕으로 하는 힐빙 문화시대를 열어가길 희망한다.



朴 憲 烈

(화학공학67-71)

국제힐빙학회장

중앙대 힐빙문화연구소장

힐텍은 인문학·사회과학, 예술·문화, 생명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융합 또는 통섭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운영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힐빙(heal-being)문화란 우리 전통의 상생문화에 힐텍과 녹색정신을 접목, 더욱 발전시켜 피폐해진 자연과 인간을 치유해 건강성 회복과 함께 인류를 행복한 사회에서 살도록 하는 새롭게 전개될 미래 문화를 일컫고 있다.

힐텍의 기본 발상은 현대식 영농 방식과 물질중심문명의 기

웰빙에서 힐빙시대로

엄청난 양이 됐다. 그래서 유해한 화학물질, 특히 농약이나 인조 비료 등이 토양과 자연에 축적되고 오염돼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 현대인이 이렇게 피폐해진 자연에서 생산, 재배되는 1차 산물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소비하고 있는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예컨대 새집증후군)로 말미암아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질병인 화학물질과민증(아토피 포함), 비만증, 각종 성인병과 암 질환이 만연하게 됐다.

그리고 고도로 발달한 정보통신 제품과 인터넷 사용으로 게임중독증, 우울증(특히 자살률 증가)과 같은 현대 정신 질병을 초래해 물질 풍요 속에서도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불행을 자초한 사회가 됐다. 복합적인 원인이 얹혀져 발생한 위의 현상들에서 야기된 부작용과 역현상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망가진 우리 건강을 어떻게

본 편의의 틀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1차 산물을 재배해 섭생하는 인간 본래의 건강한 생활방식으로 돌려보자는 데에 있다. 20세기 후반에 우리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해지려는 웰빙 열풍이 불었고, 금세기 들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건강과 환경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로하스(LOHAS)상품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웰빙과 로하스를 넘어서 미래에 건강과 환경은 물론 치유 개념까지도 포함한 힐빙 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 사회 제 질병 현상을 치유,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리는 힐빙 문화 트렌드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해 감으로써 국내 사회의 병리적 현상의 해결을 꾀함과 아울러 국제적인 힐빙 문화시대를 선도해 미래에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사회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길 염원해 본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朴 薦 壽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장학빌딩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5)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金昌均,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邊榮顯, 玄智愛 광고부장 金千鶴

장학빌딩 완공에 기여한 건설관리위원회에 공로패 전달



李鉉秀·金勇哲·孫一根·林光洙·李愚鍾·孔大植·邊榮進등문

본회는 지난 11월 16일 모교 관
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장학
빌딩 건설관리위원회에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林光洙회장은 대영테크시
스템 孔大植(기계공학56-60·본
회 부회장)회장, 명승건축 邊榮進
(건축66-70)회장, 한일엠이씨
金侑經(전기공학68-72)부사장,
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金勇哲
(공업교육71-76)설계본부장, 가
천대 李愚鍾(공업교육72-76)부
총장, 모교 건축학과 李鉉秀(건축
76-83)교수, 간삼파트너스 吳東
熙(건축78-92)대표에게 공로패
를 수여했다.

林光洙회장은 “장학빌딩 건설관
리위원회 위원으로 건축의 품질·
안전 점검을 통해 본 빌딩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크게 기여했다”
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여수지부동창회

가을맞이 정기총회 개최

여수지부동창회(회장 金宣
圭)는 지난 10월 31일 여수시
내 소호동에 있는 마리나뷔페에
서 가을맞이 정기총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秋永求(약학45-
50)동문을 비롯해 양길모(화학생
물공학01-08)동문 등 다양한 연
령층의 동문 30여 명이 참석해 서
로의 안부를 묻고 모교의 발전방
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金희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의
개학연도와 통합개교연도, 총동창
회의 연혁과 발족과정에 대해 설
명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모교
의 법인화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
했다.

동창회는 지난 3월 22일 동창회
재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젊은 동
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전북지부동창회

전북지역 역사 유적지 탐방

전북지부동창회(회장 金聖吉)는
지난 11월 5일 전주 시내 종합경기
장 정문에서 모여 전북지역 역사
유적지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우석대 사회교육과
趙法鍾교수가 해설을 맡아 진행했
으며 충남 서산 해미읍성-개심사
-서산 마애삼존불-보원사지-남
연군묘-수덕사 코스로 탐방했다.
오전에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 많은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해
전북지역의 유적지 의미를 되새기
며 가을정취를 만끽했다.

특히 행사를 위해 金聖吉회장이
저녁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해
전주대 高 健(응용물리67-74)
총장이 투어버스, 金起東(법학75-
79)변호사가 점심 제공, 전북대
金英淑(의류72-76)교수가 격려
금을 지원했다.

안동지부동창회

차기 李熙載회장 선출

안동지부동창회(회장 鄭求民)
는 지난 11월 21일 안동 시내 청
록 한정식당에서 30여 명의 동문
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 및 세
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차기회장에 안동대 총장을
역임한 무역학과 李熙載(무역69-
77)교수를 선출했다.

이번 모임에 신입회원으로 프라
임치과원장 金在權(치의학83-
87)동문이 처음 참석했으며, 안
동대 李英仁(농생물55-65)前교

수는 “수원으로 이사를 가서 이번
모임이 마지막”이라며 동문들과
인사를 나눴다. 또 지난 10월 국
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金建鍾
(AMP 38기)동문이 수상인사를
했다.

이날 만찬에 이어 진행된 세
미나에서 내년 2월 결혼 예정인
안동대 의류학과 전대근(대학원
02-07)교수가 ‘의복과 건강’을
주제로 동문들에게 유익한 정보
를 제공했다.

안동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동창
회 명의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백만원을 출연할 예정
이다. (南)

제14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여러 이웃 동문에게도 널리 알려 많은 후보자의 추천
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 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해 외 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위의 3개 상에 버금가는 특 별한 공로가 있는 해외 동문에게 3년 주기로 시상할 수 있음.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 2012년 1월 31일
2) 접 수 처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217호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전화 : 702- 2233 · 팩스 : 703- 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2012년 3월 16일)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84세의 나이에도 캠핑을 즐기
다 보니 건강법을 묻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럴 때마다 ‘건
강 의식 않고 자유롭게, 부지런
히 살면 건강은 먼지처럼 따라
오는 것’이라고 답하곤 한다.

필자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 혼자 산지
27년이 됐다. 김치
도 담고 빨래도 직접
한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하기 때문에 하
루가 짧다. 새벽 5
시에 일어나 오전에
는 산책

을 하고
책을 읽
는다.

캠프나비 회원들에게 보낼 글도
쓴다.

하루 세끼 밥 짓고, 먹고, 설

거지하는 시간만 3시간. (식사
에는 항상 양파, 양배추, 사과
샐러드가 들어간다.) 이 시간도
그냥 허비하는 것 같아 라디오
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 오후
에는 지하철을 이용해 서점도

가고 평소 점 찍어둔
장소를 여행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산으로 들로 야영을
떠난다. 추운 날씨
에도 텐트와 침낭만
있으면 된다. 사람
몸은 저항하면서 강
해진다. 이제 어지

간한 추
위는 추
위로 느
껴 지 지

도 않는다. 자연과 독대하며 자
유의 기쁨을 맛본다. (기계공학
46-49)CampNabe 캠프호스트



朴相 高

●건강 의식 않고 자유롭게



건강관리에는 어떤 운동법이
필요한가? 우리의 건강관리, 특
히 노년기에는 단전호흡이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단전호흡 때의 자세
는 두 다리를 꼬아서
반가좌형으로 앉되,
등을 수직으로 곧게
펴고 어깨와 가슴의
힘을 빼고 두 손을
자연스럽게 양 무릎
에 놓고 고개를 든
상대에서 턱은 약간
몸 쪽으

로 당긴
다.

단 전
호흡 방법은 우선 10초 동안 코
로 숨을 들이마시되 서서히 기늘
고 길게 계속 마셔서 하단전에
저장한 후 숨을 끊고 10초 동안
운몸 안에 있는 탁기, 독기 및
살기 등을 쫓아낸다는 기분으로
신선한 공기를 체내에서 회전시

킨다. 그런 뒤 마지막 10초에는
항문 앞 會陰을 거쳐 척추 꼬리
뼈까지 이동시켜 큰 소리를 계속
지르며, 나쁜 공기를 척추 상부

로 이동시켜 머리상
부 百會를 거쳐 체외
로 내쫓는다. 이와
같은 순서로 10분간
계속한다.

이 단전호흡법을
쉽게 할 수 있게 되
면 다음은 15초씩 늘
려 가는 것이 좋다.

필 자 는
매일 아
침, 점
심, 저

녁에 단전호흡을 하면서 83세의
나이에도 50~60대 못지 않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등생보다는
개근생이 돼야 한다. 꾸준히 할
것을 권한다. (법학48-52)前
멕시코 대사



具 忠 會

●단전호흡이 활력 복돋워



법대동창회

등산·바둑대회로 친목 다져

법과대학동창회(회장 金慶漢)는 지난 11월 19일 서울 흥익동 한국기원에서 제13회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전 : 우승 18회 동기회(金永泰·崔炳兌·崔哲模동문), 2위 39회 동기회(姜熙喆·鞠祥鍾·徐弘直동문) ▲개인전 A조 : 우승 黃炫圭(공법81-85)동문, 2위 朴鍾欄(법학60-65)동문 ▲개인전

B조 : 우승 洪在憲(행정58-63)동문, 2위 崔昌植(행정58-62)동문

한편 지난 10월 29일 서울 도봉산에서 제7회 등산대회를 열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1백여 명의 동문이 참가해 통일교-우이암을 거쳐 전망대-서원교-매포소로 돌아오는 3시간 풀코스과 보문능선에서 천진사 방향으로 하산하는 2시간 단축코스를 등반하며 친목을 다졌다.

농공학과동창회

91학번 주관 ‘농공의 날’

농공학과동창회(회장 金景旭)는 지난 10월 8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47회 정기총회 겸 ‘농공의 날’ 행사를 거행했다.

91학번 동기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장학금 수혜자 48명에게

장학증서를 전했으며, 동창회 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동문들에게 공로패를, 지난해 ‘농공의 날’ 행사를 주관한 90학번 동기회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영화감상 및 선후배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동창회는 매년 5월 ‘대선배의 날’과 10월 ‘농공의 날’ 행사로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1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생대동창회

관악수목원서 산행대회 개최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鄭潤煥)는 지난 11월 5일 모교 관악수목원에서 40여 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산행대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 모교 관악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200동) 앞에 집

결한 동문들은 모교 재학생들의 인솔로 산행길에 올랐다.

53학번 동문 부부, 84학번 동기회, 재학생 등이 한데 어울려 공과대학 신공학관, 신소재공동연구소를 지나 관악산 아카시아

관악회 여기자모임

모교 총장 공관서 모임

관악언론인회 여기자모임(회장 申然琇)은 지난 11월 14일 모교 吳然天총장의 초청으로 관악캠퍼스 총장 공관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申然琇회장, 蔡耕玉부회장 등 30여 명의 여기자와 모교 吳然天총장, 朴明珍·李昇

鍾부총장, 南益鉉기획처장, 姜煥鎬기획2부처장 등이 참석해 법인화 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모교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대원동창회

金榮煥의원 초청 강연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李萬儀)는 지난 11월 2일 서울 방배동 팔래스호텔에서 조찬세미나를 개최

했다.

金榮煥국회의원이 연사로 초빙돼 ‘창조적 상상력으로 최초로 도전하라’를 제목으로 강연한 이날 모임에는 李萬儀회장, 모교 한대원 李道元원장을 비롯해 4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이날 점심은 모교 농생대 李鶴來학장이 제공했으며, 대강양조장 趙在九(산립자원83-90)대표가 막걸리를 협찬했다.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

홈커밍 데이 행사 열어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회장 林鍾贊)는 지난 11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301동, 302동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3년마다 개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林鍾贊회장,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趙在英학부장을 비롯해 동문 가족 1백여 명이 참석해 정기총회, 랩실 투어, 입시 준비생을 위한 진학 지도, 만찬 및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총회에서 장학금 및 도서지원 증서 전달식을 가졌으며 내년 사업과 임원진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자녀들을 위한 랩실 투어는 4~5명이 한 조를 이뤄 각 연구실을 돌아보며 간단한 실험도 병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만찬 뒤 가진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동문 가족이 단합하며 푸짐한 경품도 받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를 위해 林鍾贊회장, 金榮率부회장, 朴斗鴻·朴東遠동문, 34회 동기회 등에서 물품을 협찬했다. (南)



관악교수테니스회

朴鍾來·朴一赫교수 우승

관악교수테니스회(회장 李東洙)는 지난 10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코트에서 2011년 가을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30명의 동문이 참가해 A·B조로 나뉘 열띤 승부를 펼쳤다.

행사를 위해 본회 林光洙회장, 모교 吳然天총장을 비롯해 교내의 여러 단체에서 금품을 협찬했다.

관악교수테니스회는 모교 교수

2백3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봄·가을 두 차례 대회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다.

이날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조 : 우승 朴鍾來(섬유공학81졸)·朴一赫(체육교육87-91)교수, 2위 全永鐵(언어81-85)·吳憲錫(국민윤리교육86-91)교수, 3위 金勇重(의학86-92)·權成浩(체육교육92-96)교수, 4위 曹鍾守(잠사66-70)·金都淳(농학85-89)교수 ▲B조 : 우승 李奉振(약학77-81)교수·박학진 씨, 2위 李仁盛(지질75-79)·崔鍾根(자원공학84-88)교수

제9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 추천해 주세요”

-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는 제9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 서울대 언론인 大賞은 관악언론인회와 서울대총동창회가 한국 언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서울대 출신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 후보자를 널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 서울대 출신으로 국내의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에 근무하는 언론인, 언론사 경영인, 언론 학자, 언론단체 종사자, 언론정책 담당자.
 2. 추천인
 - 1)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의 대표, 주필, 주간, 해설위원장, 편집·보도국장, 편집장 등 부서장
 - 2) 언론단체의 대표
 - 3) 대학 언론학 학과장, 대학원장
 3. 심사대상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공적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3년 이내의 공적도 참고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 1) 추천서 : 후보자의 상세한 인적사항과 이력 및 경력, 공적 개요, 추천 사유를 명기한 자유 양식의 추천서를 작성해 E-mail(snu1969@naver.com)로 접수시켜야 함.
 - 2) 공적 자료 : 주요 기사, 방송 자료, 논문, 공적서를 파일화해서 E-mail로 접수. 필요에 따라 직접 제출 가능.
 5. 추천기한 : 2012년 1월 31일
 6. 수상자 발표 : 2월 중순
 7. 시상식 : 2월 정기총회
 8. 문의 : 02)886-2219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

남자들의 공 이야기

남자들은 중·고등학생 때 주로 농구에 관한 얘기를 하고, 말단 사원일 때는 축구 얘기를 한다. 중간 관리자일 때는 테니스에 대한 얘기를 하며, 임원이 되면 골프 얘기를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든 사장들이 만나면 온통 비아그라 丸藥 얘기가 된다.

결국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갖고 노는 공이 작아진다.

죽은 빈대

한 나그네가 하룻밤을 묵기 위해 싸구려 객주에 들어갔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니 빈대 한 마리가 있었다.

“주인장 여기 빈대가 있네요.”

가장 맛있는 집

한 골목에 음식점 세 개가 나란히 있었다.

A음식점 간판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집.
B음식점 간판 :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집.
C음식점 간판 : 이 골목에서 가장 맛있는 집.

(독자제보 촬영)

연극동문회

창립총회서 李順載회장 선출

연극동문회 창립총회 준비위원회(위원장 尹完錫)는 지난 11월 26일 모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에 세종대 李順載(철학54-58)석좌교수를 선출했다.

이날 모임에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 申榮均(치의학48-55)명에 회장, 金義卿(철학55-60)前한국연극협회 이사장, 金學泉(독어교육59-63)前EBS 사장을 비롯해 모교 연극동아리 출신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해 동문회 발족을 축하

했다.

尹完錫(경제73-77)준비위원장은 “지난 60년대 대학극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던 선배 동문들의 유지를 이어받아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며, 서울대 연극회의 활동에 협조하고 참다운 대학극 활동의 지표를 확립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극계에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오늘의 자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李順載초대 회장은 “오늘 이 순



간, 지금 바로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할 공통의 가치가 있음에 진심으로 기쁨 베풀 희망을 가져본다”며 “한국 현대사의 격변과 질곡 속에서도 끊임없이 창작활동을 이어오며 한국 연극 발전에 이바지해온 우리 동문들의 부활, 그리고 전설의 꿈을 그려 본다”고 말했다.

이날 고문으로 추대된 申榮均동문은 “연극배우를 비롯한 서울대 출신의 전문 연기 예술인이 드물기는 하지만 이번에 창립된 연극동문회를 통해 뛰어난 연극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모임이 활성화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동문회는 내년 1월 서울대 연극사료편찬위원회와 전용극장 설립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며 학술세미나(3월), 희곡 공모(4월), 정기공연(9월), 회보 발간(12월)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동문회 사무실은 삼창텔레콤 金仁洙(건축74-79)대표의 도움으로 서울 충정로3가 삼창빌딩 9층에 마련됐다.

동문회는 46학년부터 07학년까지 26개 연극회에서 활동했던 동문 수를 7천여 명으로 추산했다.

토목공학과동창회

35회 동기회 모교 방문 주최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주관한 35회 동기들

토목공학과동창회(회장 片宗根)는 지난 10월 30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졸업 30주년을 맞은 35회 동기회(회장 徐一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片宗根회장, 모교 건설환경공학부 金在寬학부장 등 3백60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35회 동기회가 행사비용 일체와 모교 발전기금을 출연했다.

동창회는 이날 2011년을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모교 건설환경공학부 李吉成(토목공학66-70)교수, 한국하천협회 金昌世(토목공학68-72)회장, 한라건설 鄭武鉉(토목공학69-73)대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禹孝燮(토목공학72-76)원장, 한국시설안전공단 金罔洙(토목공학73-77)이사장, 대한토목학회 李泰植(토목공학73-78)회장, 대한교통학회 高承永(토목공학76-80)회장을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성적 우수 재학생 2명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李恩淑 作

‘마음의 괴물 Gargoyle’, Gold color on Hanji, 91×61cm, 2011

〈작가약력〉

- ▲1981~1985 모교 회화과 졸업
- ▲1996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졸업
- ▲2005 참우정의 형태전 (일본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 ▲2006 한·불 대표작가전 (프랑스 생피에르 성당)
- ▲2007 신소장품전 (국립현대미술관)
- ▲2008 제6회 심천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 (중국 심천박물관)
- ▲2009 Portraits (모교 미술관)
- ▲現한국화가 (개인전 17회)

기독동문회

조찬기도·홈페이지 오픈

기독동문회(회장 朴興日)는 지난 10월 31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회관에서 朴興日회장, 모교 吳然天총장 등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동문회는 최근 홈페이지(www.snuca.org)를 개설하고 온라인에서도 활발한 정보교류를 펼치고 있다. 〈南〉

— 알려드립니다 —

올해 회비 납부 동문께 배포해 드린 2012년 총동창회 탁상용 달력에서 1월 白文基동문의 작품과 5월 俞英濟동문의 작품 슬라이드가 제작 과정에서 서로 바뀌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상대 13회 동기회

“사랑방 오셔서 점심 드세요”

상대 13회 동기회(회장 池昌壽)가 서울 역삼동에 165㎡(50평)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영화 감상, 점심 등을 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어 타 동기회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동기회는 지난 2005년 7월 池昌壽 회장을 비롯해 여러 동문들의 기금 출연을 통해 강남 요지에 큰 사랑방을 마련했다.

회원들이 언제나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인근 식당의

점심쿠폰도 1만매 이상 넉넉하게 준비했다. 매일 10명의 동문들이 3년간 이용할 수 있는 매수다. 池昌壽 회장, 해외 거주 중인 李來鍵·李丙俊·崔洙容 동문 등 70여 명의 동기들이 점심 쿠폰을 협찬했다.

사랑방에는 대형 모니터도 설치해 매월 영화감상회 시간도 갖는다. 지난 10월 20일에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상영했다. 동기회 李海雄 편집인은 “점심

함께 하기’ 사업은 사랑방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池 회장이 낸 아이디어”라며 “더 많은 동기들이 자주 나와 점심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기회는 매년 세 차례에 걸쳐 회보(타블로이드판형·12면)를 발행해 3백여 명의 회원들 소식을 전하고 있다. 골프회도 3백회를 맞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건축학과 40회 동기회

졸업 25주년 모교 방문

건축학과 40회 동기회는 지난 10월 7일 모교 관악캠퍼스 39동 다목적회의실에서 졸업 25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982년 입학해 1986년에 졸업한 60명 중 34명이 참석해 높은 참여율을 보여줬다. 건축학과동창회 朴英健 회장과 모교 尹張燮·李光魯·金文漢·鄭日榮·洪性穆·金震均·沈愚甲 명예교수도 참석해 제자들의 모교 방문을 환영했다.

공식 행사에 앞서 1백여 명의 재학생 후배들과 ‘선배와의 시간’을 마련해 졸업 후 진로와 각 분야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서를 가졌다.

이어진 기념식에서 동기회는 모교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동문주소록 애플리케이션을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다.

金震均 명예교수는 입학원서 사진과 당시 학생들의 모습을 편집한 동영상 제작은 물론 25년간 보관했던 보고서와 시험 답안지를 돌려줘 제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날 모임은 오후 2시30분에 시작해 새벽 1시까지 이어지며 졸업

생 모두가 ‘행복의 나라’를 부르며 마무리됐다.

동송클럽

중국 황산 여행 다녀와



문리대 65학번 동기 모임인 동송클럽(회장 朴熙俊)은 지난 10월 7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안후이성 황산 여행을 다녀왔다.

吳効鎭 동문은 “이번 여행에서 많은 옛 친구들을 새 친구로 사귀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金定姬 동문은 여행 중 있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홈페이지(www.dongsoong65.net)에 남겼다.

이번 여행에는 金乃元·金斗煥·金明子·金定姬·朴星洙·朴惠蘭·裴吉勳·夫貞愛·吳効鎭·俞輝·李敬愛·李鎔雄·李充陽·張乃植·鄭德鎭·崔仁鎔·崔革·韓昌鎬 동문 등이 함께 했다.



AMPFRI동창회

강원도 맛집 탐방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文允奉)는 지난 11월 19~20일 국내 맛기행을 테마로 강원도의 맛집을 돌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난 여름 남도지역 음식점 탐방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행사에는 文 회장을 비롯해 宋明儀 수석부회장, 朴恩熙 여성회장, 최인호 사무총장 등 50명의 동문이 참가했다. (南)

— 바로 잡습니다 —

지난 11월호(404호) 10면 수의 대동창회 기사 중 ‘84학번 동기회 1억원 출연’을 ‘1천만원 출연’으로 바로 잡습니다.

12·1월 행사 캘린더

12월 20일(화) 오후 6시

• 의대동창회 송년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문의 : 740-8183)

12월 20일(화) 오후 7시

• 관악언론인회 송년회

서울 필운동 예조
(문의 : 702-2233)

12월 21일(수) 오후 6시30분

• AMPFRI동창회 송년회

서울 서초동 서초로알프라자
(문의 : 742-8863)

12월 23일(금) 오후 6시

• GLP동창회 송년회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문의 : 6000-6520)

1월 9일(월) 오후 6시30분

• 상대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문의 : 761-2278)

1월 10일(화) 오후 5시

• 농생대동창회 신년회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문의 : 882-8630)

1월 13일(금) 오후 6시30분

• 기계동문회 신년회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문의 : 889-0133)

화제의 동문

소설가 孫章純 동문

소설가·대학 교수·칼럼리스트·문학 비평가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단의 한 획을 그은 孫章純(불문54-58)동문이 지난 11월 7일 우리나라 문학 발전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모교 발전기금에 20억원을 쾌척했다.

모교 졸업 후 프랑스 유학시절 실존주의 문학을 공부한 孫동문은 ‘인생은 공연히 왔다 공연히 가는 徒勞’라는 까뮈의 사상을 소개하며 “공연히 가는 인생 길에서 나는 족적을 남기고 싶었다”며 “글을 쓰는 것도 그 중 하나이고 기부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통큰 기부는 “고독의 대가”

2009년 문학전집세트 발간 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난소암으로 1년 이상 투병했던 孫동문은 “기부는 고독의 대가”라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라고 처음에는 겸손히 인터뷰를 거절했으나 동문들을 향한 사랑과 동창회와의 인연을 되짚으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구보다 큰 孫동문은 1966년 문학계간지 ‘라 플루(La Plume)’를 창간해 발행인·편집인·주간을 겸임했다. 평생 몸담아 온 우리나라 문단을 위해, 한국 문학이 세계화되고 더 훌륭한 후배들을 배출하길 바라며 전 재산을 그것도 현금으로 통큰 기부를 선물한 문인은 孫동문이 처음이다. 가난했던 시절 왕성했던 의욕이 그림자며 “여유로운 식곤증은 싫다”는 孫동문은 평소 파마약도 직접 사들고 미용실에 다니며 절약하는 알뜰형 주부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시간과 공간의 경계 없이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장편 ‘한국인’ 집필한 우리나라 대표 文人 한국 문학 발전 위해 모교에 20억 쾌척

“사실 남편의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암으로 수술대에 누으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뜻깊은 일을 하자고 결심했죠. 지난 8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교에 입금을 완료한 상태라 지금은 속이 시원해요.”

孫동문의 남편은 故 林升準(정치50-57)동문으로 신아일보와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요 보직을 지낸 언론인이다. 남편과의 인연을 문자 소녀처럼 수줍은 듯 “별 것 없다”고 답답히 말했다.

“30세에 이혼을 하고 13년을 혼자 살았어요. 가장 좋은 시기를 홀로 보냈죠. 그 덕분에 작품활동을 하면서 대학교수로 인간의 내면을 더 깊게 연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죠. 다른 건 없어요. 조용하면서 언론을 사랑하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였죠.”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류소설가로 손꼽히는 孫동문은 단편 ‘입상’과 ‘전신’이 1958년 현대문학에 추천되면서 혜성처럼 문단에 등장했다. 이후 소설 ‘한국인’으로 제4회 한국여류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사춘기 때 앙드레 지드의 ‘좁은문’ 소설을 읽고 문학가의 꿈을 키웠어요. 빠르게 변하고 기계화되는 사회에서 요즘 대두되는 인문학의 위기는 반드시 돌파하고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쉽게 사라지는 세상이지만 소설과 문학은 영원합니다.”

우리나라 문단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

작품이나 인간의 다중인격에 관한 소설을 쓰고 싶다”며 “모든 물질과 재산을 문단과 모교에 일임하고 집을 팔아 실버타운에서 노후 생활을 하겠다”고 말했다.

‘孫章純 문학연구기금’ 조성

모교 발전기금은 ‘孫章純 문학연구기금’을 제정하고 孫동문의 뜻에 따라 한국 문학을 연구하는 외국인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모교 연구원들의 인문학 학술활동과 국제워크숍 등 한국 문학의 세계화·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孫동문은 “이제는 서로 많이 나눠야 한다”며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사회 환원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孫동문의 소설로는 한국의 역사적·사회적 운명 속에 밀폐돼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한국인’(1969)과 야망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남자의 인생이 담긴 ‘세화의 성’(1976) 등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내 작가 최초로 산악소설 ‘알피니스트’(1966)와 ‘불타는 빙벽’(1977) 등을 집필했으며 인간의 실존과 도전정신, 고독을 표현한 수많은 작품을 출간했다.

“오직 문학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孫동문의 작품과 삶의 족적을 남긴 그녀의 기부는 우리 사회와 세계 문학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榮)



모교 병리학교실 朴聖會 교수

최근 세계 의학계의 화두는 異種장기이식이다. 이종장기이식은 세포나 조직 및 기관을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이식하는 것으로, 인간의 장기만으로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동물의 장기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신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새로운 의료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종장기이식이 실제 환자들의 치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역 거부반응을 해결해야 한다. 통상 장기이식에는 면역 거부반응이 발생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투약하는 면역억제제는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게 만든다. 더욱이 다른 동물의 장기를

들에 흥미가 생기면 특하니 껌처럼 달라붙어 똥기를 뽑아내곤 했죠.”

이런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건(?) 하나. 미동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주신 선인장이 너무 좋아 그는 선인장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는 겨울, 당시 서울대 농대 식물원을 찾아가 수위아저씨에게 눈을 몽땅 치워줄테니 선인장을 몇 개만 달라고 했다. 식물원이 어찌나 넓은지 하루종일 쓸어도 반을 다 못 치웠지만 “뿌리는 뽑지 말고 새끼 선인장 몇 개를 떼어가고 좋다”는 수위아저씨의 말에 그는 손에 가시가 박히는 줄도 모르고 정신 없이 선인장을 채취했다고 한다. 이렇게 몇 년간 모은 선인장이 무려 87종. 그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선인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자부했다.

2013년 사람 대상 임상시험

한 번 빠지면 올인하는 그의 성격은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책 판매원이 팔다 남은 책을 전해 받아 독학으로 면역학

세계 최초 면역거부 없이 돼지체도 이식 장기이식·당뇨병 치료에 ‘획기적 성과’

이식하는 경우라면 더 강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은 자명한 일. 결국 이종장기이식 기술은 부작용을 어떻게, 얼마만큼 줄이느냐의 싸움이다.

그런데 이 난해한 문제가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팀에 의해 풀렸다. 모교 의대 병리학교실 朴聖會(의학67-75)교수 연구팀이 6년여의 연구 끝에 면역 거부반응 없이 돼지 체도(체중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당뇨병에 걸린 원숭이에게 이식하는데 성공했다.

“흥미있는 일 끝까지 파고들어”

지난 11월 16일 모교 연건캠퍼스 기초연구동에서 만난 朴교수는 “이식과 함께 새로 개발한 면역조절항체(MD-3)를 투여한 결과 거부반응 없이 8개월째 당뇨 원숭이의 혈당이 자동적으로 조절되고 있으며, 이식 4개월 이후부터는 면역억제제 등 모든 약제 투입을 중단했음에도 원숭이의 혈당이 정상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의학계가 놀란 이번 연구 결과는 이종장기이식은 물론 당뇨병 치료에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림을 그려본 적은 없어요. 똥기를 계획하며 살기보다는 일단 동기 부여가 돼서 발동이 걸리면 끝도 모르고 달려가는 타입이죠. 살면서 만나는 우연들이 삶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했지만, 그 작은 점 같은 우연

을 독파하는가 하면,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는 길에는 자신의 웃가지를 모두 버리고 가방 한 가득 의료용 실험기자와 시약을 넣었다.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외웠는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 머리에 쏙 들어오는 게 너무 재미있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연구논문이 발표되자 그는 단숨에 세계 의학계에서 가장 Hot한 연구자가 됐다. 특히 돼지 체도 이식 성공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희망과도 같은 소식이라 관심은 더욱 뜨거웠다. 세계이종이식학회 에마누엘레 코치 회장은 “앞으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유럽연합, 미국과 함께 세계 이종이식 분야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동물 대상 실험이 완료되는 2013년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숭이는 부작용이 없었지만 사람의 몸에서는 알 수 없는 일. 만약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가 웃으며 자신 있게 대답했다.

“부작용이 심하면 당연히 연구를 접어야죠. 그런데 부작용의 정도가 경미하고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면 단백질의 구조를 바꿔서라도 반드시 극복할 겁니다. 과학자로서 100%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부작용은 없을 겁니다. 원숭이에게 주입한 항체는 원래 사람의 세포에서 만든 것인데 원숭이 몸에서 부작용 없이 일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몸에서도 잘 기능하리라 생각합니다.” (智)

“국가 품격 높이는 일에 ‘한중연’이 앞장서겠다”

동문록 찾아서

鄭正佶 한국학중앙연구원장

小畵인 11월 23일 청계산 바람은 매서웠다. 산자락에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에서 鄭正佶(행정61-65)동문을 만났다. 훗날 정국의 외종이던 2008년 6월 대통령실장을 맡아 꼬박 2년 1개월 동안 눈코 뜰 새 없는 격무를 마친 탓일까. 7개월여 전 한중연 원장에 취임한 그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鄭원장은 이날 國格을 높이기 위한 한국학 연구 방향의 쇄신과 한류의 뿌리를 역사 속에서 찾아내는 작업에 관심을 보였다. 이런 포부와 비전을 밝히기에 앞서 그는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국정부터 걱정했다. 대통령실장 퇴임직후 후학들과 함께 ‘중도실용’을 강조한 책을 펴내기도 한 그에게서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봤다.



대 담 : 崔英勳(동아일보 부국장)논설위원

—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공기 맑고 팔찌 아픈 일도 없는데... (웃음) 저 동네(청와대)는 임기 후반기가 되니 온갖 게 다 터지네요.”

— 터가 안 좋다는 풍문이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까지는 안정감이 있었죠. 지지도 50%까지 끌어올리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된 뒤에 다른 문제가 나오고 그랬는데, 올해 초부터 이상하게 문제 터지면 해결되기 전에 문제가 또 나오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누적돼 큰일입니다.”

—李대통령이 부지런하시죠.

“얼마나 열심히 해요. 朴正熙대통령 이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도 없을 거예요. 단지 정치적인 면이 조금 약한데, 보좌진들이 잘해야 할 것 같아요.”

— 원장님 계실 때만 해도 중심을 잡아 보좌를 한 것 같은데, 경륜이 짧아서 그런지, 임기말이라 그런지 조정이 잘 안 돼요.

“임기 후반기가 그럴 겁니다. 또 제가 있을 때는 창업공신들이 많았어요. 당시 욕하는 사람 많았지만, 李東官·朴宰完·朴亨俊 등 창업공신들은 대통령이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설득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다 안 되면 나를 찾아와서 같이 설득하러 갔죠.”

— 대통령께 욕을 먹더라도 직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르르 몰려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설득하는 일이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있었어요. 10가지 문제를 두고 논쟁이 붙으면 9개는 우리 뜻을 받아들이 주셨어요.

창업공신이 아니면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대통령 생각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처음 몇 번은 직언을 하겠지만 대통령이 ‘그게 왜 안 돼’ 하고 화를 몇 번 내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포기하기 쉽죠.”

— 임기 말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임기 후반에 가까울수록 직언을 할 수 있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 미국만 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좌진들이 임기 끝까지 가죠.

“그렇죠. 人事를 할 때, 초반에는 탕평을 해야 하지만, 임기 후반부가 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해요. 그런 사람이 바른말을 하고 책임감 갖고 일을 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터득한 게 그거예요. 교과서를 다시 써야할 것 같아요. (웃음)”

— 산 속에 오셔서 중요한 발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중도실용을 말하다’란 책을 집필하셨죠. 지금 현 상황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이념, 철학, 정당 등을 떠나 풀어갈 방법을 찾는 게 중도실용이죠. 이념, 정당의 차이는 불문에 부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증산증이 없어지고, 증산증이 없어지니까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념을 떠나 일자리 창출에 매달려야 합니다.”

‘한류 원인·뿌리 찾기’ 연구 추진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 큰 성과

— 실용은 눈에 보이는데 중도가 붙으니 까 어려워요. 중도는 심오한 철학 아닙니까. 반드시 중간을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에 따라 좌우를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겠죠.

“바로 그래요. 미소금융, 보증자리 주택, 사회적 기업 설립 등은 사실 좌파정책이예요.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죠.”

—李明博정부 들어서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뒷목은 물론이고 아랫목도 추운데가 많다고 보니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 만들기가 참 힘들어요.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 만들려 강요해도 기업들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정부가 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게끔 부추기고 도와주는 것이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힘든 일 아닙니까.”

— 이해가 됩니다.

“정부에서 직접 밭 벗고 나선다 하더라도

도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원전 수주가 대표적 예인데, 원전 수주해서 발전소가 건립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하지만 당장은 아니거든요. 녹색성장 산업 대부분이 그래요. 계획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준비하고 자금도 모으려면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일들을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체감하기가 힘들죠. 속은 답답하고 일자리는 없고 원망만 쌓여요.

이럴 때 정부를 불신하는 세력들이 어려운 현실을 이용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정부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욕하죠. 메커니즘을 이해 못하는 측면도 있고 일부러 정부를 비난해야 되는 입장이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 ‘安風’ 등의 발원지겠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합시다. (웃음)”

— 취임 때 정신문화의 힘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약 40%입니다. 냉혹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혹시 잘 사해서 벌어먹는 사람들로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전자 기기, 자동차, 배, 기계부품 등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일본을 모방한 게 많죠. 우리 국민들의 생활 의식 수준, 행동 패턴이 선진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 상이 못 되요. 국회에서도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일본, 중국 사람 가운데 우리를 천박한 자본주의 국가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한류가 떠서 다행히 그런 이미지가 희석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그런 생각이 남아 있어요.”

— 어떻게 해야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중연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약 40%입니다. 냉혹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혹시 잘 사해서 벌어먹는 사람들로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전자 기기, 자동차, 배, 기계부품 등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일본을 모방한 게 많죠. 우리 국민들의 생활 의식 수준, 행동 패턴이 선진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 상이 못 되요. 국회에서도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일본, 중국 사람 가운데 우리를 천박한 자본주의 국가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한류가 떠서 다행히 그런 이미지가 희석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그런 생각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중연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 鄭正佶원장은

1942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경북고를 졸업했다. 모교 행정학과를 거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제6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농림부 기획관리실 기획계장을 지낸 뒤 미국 미시간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후 경북대 교수를 거쳐 80년 모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부임했다.

모교 한국행정연구소장, 행정대학원장, 대학원장, 울산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8년 6월 대통령실장에 발탁돼 2년간 대통령을 보좌한 후 올해 4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취임했다.

鄭원장은 우리나라 행정학계에 정책학을 도입한 행정학자로 알려져 있다. ‘정책학원론’,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등 10여 권은 행정학 필독서로 꼽힌다. 2010년에는 미국 행정학술원(NAPA)이 최초로 선임한 국제회원 2명 중 한 명이 됐다. 대학시절 영어 스터디그룹에서 만난 홍태화 여사와 결혼, 1남2녀를 두고 있다. 교회를 다니며 취미로 바둑을 즐긴다.

역사 속에서 과학적 사고, 창의성 등을 중요시했던 기록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과학적인 사고방식, 창의성이 있던 민족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싶어요. 이런 연구 결과가 퍼져나가면 우리보고 일본을 흉내냈다는 소리 함부로 못하고 젊은이들도 자긍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계획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구분해 당시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과학기술, 특히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적용한 사례들을 시대별 전공자들에게 조사하도록 하고 같은 시기의 일본은 어떻게 과학을 실생활에 접목했는지도 비교 연구토록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세종대왕 때까지는 조금 앞섰을 거라고 봐요. 그 이후 일본은 네덜란드로



“쉬운 연구 아닌 가치 있는 연구하도록 개선”

☑ 부터 문물을 받아들이며 앞서 나가고 우리는 쇄국정책으로 정체되면서 차이가 생겼죠.

일본과 함께 시대별로 비교하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왜곡 아닌가, 자료를 미화한 거 아니냐는 논쟁도 불고, 언론 보도와 방송의 전파를 타면 대외적인 이미지도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자세도 서서히 고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 연구결과가 기대됩니다.

“예산을 신청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 정권이 아당으로 교체되면... (웃음)

“내용의 뜻을 알면 누구든지 공감하리라 믿어요. 제가 떠나더라도 일단은 연구비를 확보해 시동을 걸면, 또 내년까지는 있을 테니까, 한 번 더 연구비를 따낼 수도 있고요. 밖에서도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터를 만들어 두면 자연스럽게 추진될 겁니다.”

— 우리나라가 2050년에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거라는 낙관론(골드만 삭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한류가 뜨고 있죠. 곳곳에서 한류가 났는데 왜 이럴까, 원인이 뭘까. 가만히 내용을 보면 어느 것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넘버원이 되겠다는 집념과 추진력, 온힘을 다해 이뤄내려는 불굴의 정신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적절한 재능이 뒷받침됐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열이 대단하잖아요. 현 교육 환경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떠나 개 개인의 지적 능력과 자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무슨 일에 부딪혀도 뻘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존속하는 한 큰 나라로 성장해 가리라 믿어요.

한류가 나와서 말인데 그에 대한 연구도 계획하고 있어요. ‘한류의 원인과 뿌리 찾기’란 주제로요. 한류의 뿌리가 어디 있나. 우리 선조 DNA 속에 있던 거냐 아니면 도중에 만들어진 거냐 등. 의욕이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 할 일이 많아요.”

— 말씀하신 대로 세계 곳곳에 한류 붐이 일고 있는데, 이 기회에 우리의 우수한 지식문화도 세계로 확산됐으면 합니다.

“그렇잖아도 한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 세계 대학에 한국학 강좌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영국 옥스퍼드대나 미국 예모리대 같은 유수의 대학부터 튀니지나 그루지아 같은 열세 지역까지 한국학 교수들을 폭 넓게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한국학을 확산할 중핵대학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被지원 대학은 하버드대, 베를린 자유대, 상트 페테르부르크대 등 그 지역에 영향력을 가진 대학입니다.”

— 공기 좋은 곳에 좀 쉬러 오신 줄 알았는데 일을 많이 벌이셨네요.

“이 자리에 李榮德·李賢宰 선생님이 총리 지내고 연세가 좀 있으실 때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친구들 찾아오면 바둑이나 두고 책이나 읽는 자리’라 생각했어요. (웃음) 와서 보름 지나니까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국내 행정학계에 정책학 도입 울산대 총장·대통령실장 역임

방금 말한 두 가지는 쉽게 계획 세워 나갈 수 있는 건데, 하다 보니 한국학의 방향 전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학이란 게 정치, 경제부터 시작해서 음악, 종교, 민속, 문학, 철학, 역사 등 온갖 것을 다 아우르는 말이잖아요? 한국에 대한 연구는 다 한국학이란 이름을 붙여 자료 수집하고 중요한 것은 백과사전으로 만들고 디지털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외국어로 번역도 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중요한 연구 중 빠진 것이 많고 쉬운 연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 성과를 내야 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요.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해야 하니까. 또 논문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가 풍부한 시대, 분야만 하게 되요. 과학, 창의성 하면 세종대왕 때가 역사상 꽃을 피우던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사 전공자들의 연구 대부분이 1800년

대 이후로 치중돼 있어요. 세종대왕 때 연구가 몇 개 없어요. 삼국시대는 꿈도 못 꾸죠. 許浚의 동의보감만 붙들고 논문이 수십 편 나오는 거예요. 그 노력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세종대왕 시대에 투자해 일본, 중국의 문헌도 찾아보고 문중의 고문헌들을 뒤져보면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찾은 자료 한 두 개로 논문을 쓸 수도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사실은 그런 자료 한 두 개 찾는 게 1800년대 자료 갖고 논문 수십 편 쓰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죠. 평가 시스템이 잘못됐어요. 그러다 보니 연구방향도 왜곡되고, 가치가 적은 연구만 되풀이되고 있고요.”

— 방향을 바꾸셔야겠습니다.

“적어도 연구 주제를 정할 때는 시작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분야별로 대석학 두 세 분을 모셔놓고, 각 시대별 연구 분야에서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해 우리만 빠진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3백억원이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국학진흥사업단의 2백23억원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은 교수직 69명을 포함하여 2백10명입니다.”

— 공간이 무척 넓고 아름답습니다. 시민들에게 개방돼 있나요.

“당연히 시민들과 이 공간을 함께 누려야죠. 1978년 설립 당시,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래된 나무들이 무척 많고 아름답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4~6월, 9~11월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원내 캠퍼스를 개방하는 ‘구름마을산책’을 운영하며, 매년 네 차례씩 강연과 공연으로 구성된 ‘한국학과 함께 하는 문화나눔 문화가람 美樓’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요.

또 한국학대학원에서는 고전적 이해를 위한 전통식 한문 교과과정인 ‘청계서당’을 운영하고 장서각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장서각 아카데미와 다양한 전시와 콜로키움 등을 개최하고 있죠. 각 연구소 및 사업부문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세미나 등 한중연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대부분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 모교 교수 출신으로서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걱정하는 등록금 인상, 인문학 등 기초학문 약화 문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 쪽이 약화되는 것은 법인화가 되어도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논쟁으로 법인화 후 기초학문에 대한 관심은 커질 것으로 봅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문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서울대 등 국립대 등록금이 저렴해왔던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사립대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아주 커요. 가난한 학생들은 어떡하든 장학금을 주도록 해야 하고 집안이 넉넉한 학생들은 좀 더 내야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법인화는 회계부문의 융통성을 확보해 밖에서 많은 자금을 끌어 모으고 등록금이 학교 운영에 차지하는 비율을 적게 만들 겁니다. 미국의 주립대들이 법인인데, 등록금 의존도가 25% 정도로 낮습니다.

학생들이 걱정하는 두 가지 중에서 인문학 등 기초학문 육성은 이번에 탄탄하게 준비해 주는 게 좋고, 등록금 부분은 학생들이 생각을 바꿔서 가난한 학생들은 충분히 도와주고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학비를 더 내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해요.”

— 마지막으로 동창회에도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총동창회는 단과대학동창회보다 세가 약했습니다. 林光洙회장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 덕분에 지금은 총동창회다운 면모를 갖게 됐고, 훌륭한 동창회관까지 세우셨어요. 그리고 林회장님이 관악연문인회도 조직해 모교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죠. 조언보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정리=金南柱기자)

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 평가 시스템도 바꿔 연구비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이쯤에서 한중연 소개 좀 해주시죠.

“한중연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와 교육 등을 통해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해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지금까지 발간한 7백여 종의 출판물과 한국학대학원을 통해 배출된 1천여 명의 한국학자들은 이 땅의 인문·사회과학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꼽자면 우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구비문학대계 편찬을 들 수 있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2년간 3백여 명의 편집진과 3천8백여 명의 집필자가 참여해 현재까지 개정, 증보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장서각을 중심으로 한 고문서 수집과 연구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고문서집성’은 올해로 1백권을 펴내어

제1회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동문·재학생간 네트워크 구축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11월 17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제1회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吳然天총장, 체육교육과 林繁藏 명예교수, 사범대학 金鍾旭학장, 趙錫俊기상청장 및 재학생과 동문 2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교내 운동부와 체육관련 재학생·동문들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



金善振교수(左)에게 본회 林光洙회장이 지원금을 전달했다.

하고 모교의 체육진흥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를 위해 본회에서 5백만원을 지원했으며, 2012년 1학기부터 체육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재학생 2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기로 했다.

吳然天총장은 환영사에서 평소



좋아하는 운동이 탁구라고 밝힌 뒤 “서울대 학생은 문약하고 운동을 잘 못한다는 편견이 있다”며 “이번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고 서울대 체육인들이 이런 모임을 통해 서로 격려하며 신체와 정신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건강한 심신이 국가 발전으로 연결되는 모임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모교 체육인들의 축제인 체육인의 밤 행사를 맞아 축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한 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체육인 동문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모교 체육교육과 金善振(체육교육77-81)교수에게 지원금을 전달했으며, 재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2부에서는 만찬과 함께 모교 운동부 소개와 홍보영상을 상영했으며 무용부와 체조부, 댄스스포츠부가 합동으로 공연을 펼쳤다. 각 운동부에서 별도로 마련한 테이블

에는 20대 초반의 재학생부터 60대의 나이가 지긋한 선배들이 서로의 운동비법을 나누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모교 운동부는 1940~50년대 검도·럭비·하키·태권도·체조·유도로 시작해 현재 축구·야구·요트·무용·댄스스포츠·스노보드·핸드볼 등 33개 부를 갖춰 대부분의 운동 종목을 아우르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재학생 수는 8백41명이며 1975년 관악캠퍼스 이전 후 운동부 출신 동문은 4천여 명에 달한다.



제7회 교육상·제4회 학술연구상

독문과 全英愛교수 등 11명 수상

모교는 지난 11월 3일 관악캠퍼스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320호에서 ‘서울대 교육상·학술연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교육상 수상자는 독어독문학과 全英愛(독문73졸)교수, 경제학부 金善九(무역76-80)교수, 물리천문학부 安敬源(물리79-83)교수, 경영학과 尹錫和(경영88-92)교수, 전기공학부 金容權(전기공학79-83)교수 등 5명이다.

학술연구상은 국어국문학과 朴熙秉(국문75-79)교수, 인류학과 全京秀(고고인류67-71)교수, 화학부 鄭永根(화학73-77)교수, 에너지시스템공학부 全孝澤(자원공학67-71)교수, 농생명공학부 李炯周(농화학66-70)교수, 영상의학교실 崔炳寅(의학68-74)교수가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올해 7회째인 교육상 수상자는 5년 이상 재직 교수 중 수준 높은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한 교수를 선정하며, 2008년 제정된 학술연구상은 창의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한 교수에게 수여한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축사에서

“내면 성찰과 탐색에 주력하시고, 학문에 전념하신 교수님들이 존경스럽다”며 “오늘 수상하신 교수님들은 교육과 연구의 일관성·헌신성·창의성을 지닌 승리자”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모교 吳然天총장을 비롯해 李昇鍾연구부총장, 인문대 邊昌九학장, 공대 李愚日학장, 의대 任廷基학장과 보직교수, 재학생 및 가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러시아 거장 ‘아슈케나지’ 음대 오케스트라 지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러시아의 거장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Vladimir Ashkenazy·74세)가 지난 11월 15일 모교를 깜짝 방문했다.

우리나라와 호주 수교 50주년을 맞아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내한한 아슈케나지는 모교 음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일 지휘자로 부임해 무료로 학생들을 지도했다. 그는 직접 지휘봉을 쥐고 기악과 재학생들과 함께 문화관 대강당에서



총동창회장배 고교동문 야구대회

16개팀 출전…전기공학부팀 우승

지난 11월 1~13일 모교 관악캠퍼스 야구장에서 제17회 총동창회장배 고교동문 야구대회가 열렸다.

16개팀 3백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전기공학부팀(사진)이 유전공학연구소 팀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모교 야구부 閔賢基(경제06입) 주장은 “매년 공부에 지친 후배들을 위해 야구대회를 지원해주시는 동창회와 선배님들에게 감사하다”

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운동인 야구를 통해 공부에만 치우치기 쉬운 학교 생활에서 협동심을 키우고 더불어 사는 법도 배운다”고 말했다.

모교 체육진흥관리위원회(상임위원 金善振 체육교육77-81)는 재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화합을 위해 고교동문 야구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회는 매년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을 연주했다.

방한 전 “한국의 음악 영재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한 아슈케나지는 평소에도 유럽연합 청소년 오케스트라(EUYO)를 지휘하는 등 젊은 연주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바이올린 연주자로 수업에 참가한 김성아(기악08입)양은 “음악적 표현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음대 관악합주

창단 50주년 기념 연주

모교 음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관악합주(SNU Wind Ensemble 지휘 金泳律)는 지난 11월 21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창단 50주년 기념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교 작곡과 白秉東(작곡55-61)명예교수가 관악합주를 위해 작곡한 ‘축전 서곡 2011’을 비롯해 ▲프랑스 모음곡 ▲색소폰 협주곡 ‘에스카페이드(Escapade)’ ▲선명한 색채 ▲블레로 등의 곡을 연주했다.

평의원회 의장에 朴鍾根교수 선임



지난 11월 3일 모교 평의원회 의장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朴鍾根(전기공학69-73)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차의장은 1952년생으로 일본 도쿄대에서 1979년 석사학위, 1982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국립에너지물리학연구소를 거쳐 1983년 모교에 부임한 차의장은 모교 연구처장,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장을 비롯해 대한전기학회장, 본회 관악대상 운영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6월 제1회 한국전력공사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평의원회는 같은 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동학부 韓慶惠(농가정74-78)교수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특히 세계적인 색소폰 솔리스트인 파리고등음악원 클로드 들랑글(Claude Delangle)교수가 협연했으며, 선배 동문들이 후배들과 합동으로 연주하는 다채로운 구성을 선보였다.

1961년 창단 이래 우리나라 연주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관악합주는 다양한 레퍼토리와 수준 높은 연주로 청중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또 매년 이색적인 시도와 기획으로 젊은 연주자들의 연주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榮)



李相紀·李炯周교수, 吳然天총장, 金基善교수, 李鶴來학장

농업생명과학대학

상록연구·학술·교육상 시상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李鶴來)은 지난 11월 28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2011년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이하 상록연구대상) 및 학술상·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19회 상록연구대상 수상자에 농생명공학부 李炯周(농화학 66-70)교수, 제11회 학술상 수상자에 농생명공학부 李相紀(농화학 79-83)교수, 제9회 교육상 수상자에 식물생산과학부 金基善(원예 74-78)교수가 선정됐다.

모교 朴明珍교육부총장은 吳然天총장을 대신한 축사에서 “모교 농생대는 끊임없이 교수님들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해 발전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인류 미래를 책임지는 단과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상록연구대상을 수상한 李炯周교수는 1980년 모교에 부임해 기능성 식품학 분야 교육과 사회 봉사 활동에 힘써 왔으며 재직기간 중 SCI논문 2백11편을 발표하는 등 탁월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학술상을 받은 李相紀교수는 2003년 모교 부임 후 생화학에 관련된 전공과목 강의와 연구를 통

해 유용한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삼차구조 연구 등 구조생물학 교육과 연구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교육상 수상자인 金基善교수는 1988년 모교 부임 후 ‘생활원에’ 교양강좌를 통해 모교 재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현장 실습과 견학을 통한 수업으로 환경에 대한 지식을 고루 전하는 교수로 유명하다.

농생대 ‘샌드페블즈’

창단 40주년 기념 콘서트

지난 11월 12일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출신 아마추어밴드 ‘샌드페블즈(Sand Pebbles)’가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창단 4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었다.

샌드페블즈는 1970년 창단해 1977년 제1회 MBC 대학가요제에서 6기 멤버들이 ‘나 어떡해’를 불러 대상을 차지해 유명해졌다.

40년동안 총 1백96명의 회원을 배출한 샌드페블즈는 최근 KBS2TV ‘톱밴드’에서 창단 멤버 金東晚(농업교육 70-74)동문의 아들이 톡식(TOXIC)의 기타리스트로 출전해 우승을 하면서 화제가 됐다.

일본 홋카이도대와 심포지엄

‘대학의 사회적 책무’ 공동 발표

모교와 일본 홋카이도대는 지난 11월 17~19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과 각 단과대학에서 ‘대학의 사회적 책무(Social Responsibilities of Universities)’를 주제로 제14회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모교 吳然天총장, 홋카이도대 사에키 히로시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과 연구소의 교수 및 연구원 1백여 명이 참여했다. 17일 모교 吳然天총장의 기조연설 등 본 행사에 이어 18~19일 이틀간 각 단과대학과 연구소 주관으로 환경·보건·교육 관련



吳然天총장·혼마 토시히사 교수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각 단과대학은 ▲차세대를 위한 나노메디슨 ▲환경학에서의

지속가능성 문제 등 학문 분야별로 12개 세션을 나눠 심포지엄을 진행했으며, 국제협력본부와 교수학습개발센터, 러시아연구소도 참가해 ‘캠퍼스 국제화’를 주제로 토론했다.

모교와 홋카이도대는 지난 1998년 양 대학의 학술교류협정 1주년을 기념해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지금까지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교는 이번 행사에서 당시 학술교류협력과 심포지엄을 주도해 양교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홋카이도대 혼마 토시히사 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모교는 이번 공동 심포지엄으로 학술교류 증진은 물론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공유하고 나아가 세계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수의대 李 恒교수 연구팀
동물 배설물로 생태 파악

지난 11월 17일 모교 수의학과 李 恒교수의 야생동물유전자원은 행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수달의 배설물을 이용한 유전자 분석으로 개체 식별·암수 구별·개체수 측정·근연관계 파악에 성공했다.

기존 연구팀들은 동물을 직접 포획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거나 전파발신기를 달아 추적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야생동물을 연구해 왔다. 그러나 포획을 통한 연구방법은 그 과정에서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부상·폐사 가능성도 있어 소수개체만 남아 있는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종 대상 연구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직접포획이 아닌 배설물과 털을 이용한 이번 연구결과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동물들의 생태와 유전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李교수 연구팀은 연구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구에 1급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7마리 이상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물리천문학부 張閔性군
우주먼지 탄생 비밀 밝혀

모교 물리천문학부 3학년 張閔性(물리천문학07입)군(사진)이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우주먼지 탄생의 비밀을 밝혀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지구를 비롯한 행성이나 생명체의 근간을 만드는 원리로 알려진 우주먼지 생성 원리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었다.

張군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빛을 뿜어내는 천체 현상 ‘감마선 폭발’을 활용했다. 감마선 폭발이 확인된 천체 ‘GRB 071025’를 관찰하고 빛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빛을 흡수하는 우주먼지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주 탄생 이후 10억년 이내 생성된 초기 우주에도 우주먼지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돼 우주먼지의 기원을 밝히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 연구 결과는 천문·천체물리학 분야 최상위급 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 레터’에 실렸고 張군이 제1저자로 이름이 올랐으며, 지도교수인 물리천문학부 任明信(물리 86-90)교수가 교신저자(연구 책임자)로 등재됐다. (榮)

故 柳會振교수 110억대 유산 기증

암치료비 아껴 나눔 실천한 ‘천사’

동아대 산업공학과 柳會振(기계 설계78-82)前교수(사진)가 홀로 삶을 마감하면서 1백10억원대의 유산을 모교에 기부했다.

2009년 11월 구강암 관정을 받고 투병 중에 유산 기증을 약속했던 故 柳會振동문은 지난 11월 10일 향년 5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모교 발전기금은 柳동문이 독신으로 직계 가족이 없어 분당 모교 병원에 직접 빈소를 차리고 친척



과 지인들을 찾아 장례를 엄수했다.

柳동문은 모교 졸업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동아대 교수로 재직했다.

발전기금은 柳동문이 “평소 치료비도 아껴 기부금에 보탬 정도

로 자신에게는 매우 ‘인색’했으나 나눔을 향한 마음은 넉넉했다”고 전했다.

柳동문은 협약식 당시 뇌졸중 후유증으로 부정확한 발음이지만 “운 좋게도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며 “이 재산을 허투루 써선 안 된다는 신념으로 평생을 지냈다”고 말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발전기금은 모교의 발전과 따뜻한 사회를 위해 유산을 기부한 故 柳동문의 뜻에 따라 ‘함께 하는 미래’를 향한 모교 캠페인을 실행하고 매년 가족처럼 고인의 기일을 기념할 계획이다.

사범대 朴容憲명예교수

후배 위해 2억원 쾌척

지난 11월 21일 모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朴容憲(교육행정53-57) 명예교수가 교육학 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15년동안 매월 연금에서 1백만원씩 저축해 모은 2억원을 쾌척했다.

발전기금은 ‘朴容憲장학기금’을 설립하고 朴명예교수의 뜻에 따라 1억5천만원은 교육학과 재학생 중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학업성취가 뛰어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吳然天총장·朴容憲명예교수

을 지급하고, 5천만원은 교육학 학술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朴명예교수는 모교 졸업 후 미

국 마이애미대에서 석사학위, 노스웨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7년 모교에 부임해 사범대 부설 교육행정연수원 부원장, 국민윤리학회장, 교육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모교 사범대 羅驥柱(교육72-81 교육행정연수원장)교수는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내셨던 朴교수님은 평소에도 힘든 사람들을 도와 그 나눔을 조금씩 실천하셨다”며 “오랜 기간 동안 차곡차곡 모으신 거액을 후학들을 위해 선뜻 내어 주신 정신이 사회에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모교는 이번 공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강좌와 학부모 초청 ‘캠퍼스 투어’ 등을 진행하고 있다. 〈榮

발전기금 기부자 초청

오페라 갈라콘서트 열어

모교 발전기금은 지난 11월 15일 관악캠퍼스 미술관에서 발전기금 후원자를 위한 ‘베르디 오페라 갈라콘서트’를 개최했다.

발전기금은 평소 모교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후원하는 기부자들을 위한 예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문화공연을 지원하는 방식으

로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

이번 음악회에서 는 기부자와 가족 1백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모교 음대 성악과 徐慧妍(성악82-86)·朴

賢宰(성악86-90)교수를 비롯해 성악과 재학생들이 멋진 무대를 연출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吳然天총장의 ‘함께 하는 미래’

재학생의 소리



“사회 소수자들도 함께 하는 세상 만들고 싶어”

저는 타디스(TaDIS) 준비위원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유전공학부 金翺謙입니다. 이렇게 동창회보 지면을 통해 존경하는 선배님들에게 TaDIS 행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TaDIS(Technology and Design for Inclusive Society)는 기술과 디자인을 통해 포용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사의 이름입니다.

이 행사는 대학생들이 기술과 디자인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전공 수업을 듣고 있으며 그 인연으로 지구환경과학부 李尙默(해양81-85) 교수님으로부터 TaDIS 행사를 준비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듣게 됐습니다. 평소 교내에서도 다양한 장애티를 가진 학생들과 만나본 적이 있고, 또한 증증장애를 가지고 계신 李교수님의 영향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TaDIS 준비위원회 회장으로서 학생들을 모으게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졌지만, 다행히 자유전공학부·자연과학대학·법과대학·사범대학 등 다양한 전공과 학년의 학생들이 복지 문제와 행사 기획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행사를 진



金 翺 謙

(자유전공09입)

TaDIS 준비위원회 회장

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동안 구성원들은 서울대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시도되는 학부생 주최의 학술행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겨울에 ‘TaDIS 2011 :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보조기기·스마트폰 앱 공모전’이 열리게 됩니다.

비록 올해는 서울대학교 QoLT(Quality of Lite Technology)산업기술지원센터의 후원을 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조직과 구성원을 확충하고,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 각 분야로부터 지원을 받아 TaDIS 행사를 한국·일본·중국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미숙한 행사지만 TaDIS에 선배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다면 이를 준비하는 동아리 회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콩트 릴레이

비만형 검투사

李 康 熏(산업디자인92-98)소설가



“어때, 근사하지 않아?”

그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이 나타나 어느 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에페스(Efes) 고대 로마 유적지를 둘러보다가 원형경기장 객석에 앉아 쉬던 참이었다. 보통사람보다 죽히 머리 하나는 큰 거구의 남자는 고대 검투사의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쇠와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이며 신발, 등 뒤에 매고 있는 칼이 두 갈래로 나뉜 꽤 무거워 보이는 칼까지, 언뜻 봐도 무척 정교하고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진 것들이다. 하지만 검투사 복장을 하고 있기에는 지나치게 살집이 많아서 조금 우스꽝스러웠다. 나는 함께 사진을 찍고 돈을 요구하는 성가신 부류라고 단정지었다.

“

돼지가 괜히 뱀의 천적이 된 것이 아니다.

독사의 치명적인 맹독이 돼지의 두터운

지방층을 통과하지 못하듯이,

검투사들의 두텁고 단단하게 단련된

지방층은 일격에 무릎을 꿇게 되는

불상사를 막아주는 효과를 발휘했다.

”

“음, 근사하긴 한데 그다지 새로운 것도 없네. 이런 원형경기장이라면 로마가 지배했던 곳 어디에나 있는 거잖아.”

실제로 그랬다. 여태껏 거쳐 온 지역들—서·남유럽과 지중해 일대, 북아프리카—은 대부분 고대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었고, 어딜 가나 원형경기장이나 공공목욕탕, 모자이크타일 등이 남아 있지 않는 곳이 드물었다. 로마가 나의 다음 여정인 남미까지 영토를 확장하지 못했던 것이 사뭇 고마울 정도였다.

“하긴 그렇긴 하겠지. 하지만 이곳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야. 잊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곳이지. 자네, 검투사들의 싸움을 실제로 본 적이 있나?”

농담이 심하군.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터키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할 거라고 많은 이들이 충고했지만—편견일 수도 있지만—이런 종류의 정보들은 대체로 상당히 유익하다.—모로코에서 이미 단련이 될 대로 된 상태였다. 그의 말을 무시하기로 하고 자리를 옮기기 위해 일어섰다. 짧지 않은 여행으로 터득한 노하우, 대꾸를 하면 할수록 상황은 나빠진다.

“난 바로 이곳에서 죽었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물론 아주 오래 전 일이야.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림잡아 천 년은 지났을 걸. 이 칼로 목 아래를 찔렀어. 목에서 끝까지 곧바로 쭉쭉, 그 자리에서 즉사. 바보같이 칼을 빼앗겨버렸지 뭐야. 하하하.”

그는 목을 쓰다듬으며 속스러운 듯 큰소리로 웃었다. 그의 두터운 목에는 날카로운 것에 찢린 듯한 흔적이 정말로 남아 있었다. 목이 하도 두꺼워 웬만한 장사가 아니면 한 번에 찌서 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검투사라고 하기엔 좀 똥똥해 보이는데. 설마 죽고 나서 살이 썩은 것은 아닐 테고.” “설마” 남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역시나 자네도 오해하고 있군.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서양화02-07)

검투사들은 대부분 나 같은 몸매를 하고 있었다고.” 에이, 정말로? 설마.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검투사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매끈한 근육질의 소유자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남자처럼 굉장히 똥똥했는데, 지방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 일부러 살을 찌웠다는 것이다. 검투라는 것이 일단 경기장에 들어서면 죽이든가 죽든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공격도 치명적일 수 있다. 물론 그 어떤 검투사도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치 않았다. 튼튼한 갑옷으로 무장하고 싸울 수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가벼우면서도 안전한 갑옷은 당시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게다가 규정상 일정부분 이상의 무장은 허용되지도 않았다.

중세 기사들의 결투가 과연 고대의 검투만큼 박진감이 넘쳤을까? 아무튼, 오랜 시행착오 끝에 검투사들은 ‘천연 갑옷’이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돼지가 괜히 뱀의 천적이 된 것이 아니다. 독사의 치명적인 맹독이 돼지의 두터운 지방층을 통과하지 못하듯이, 검투사들의 두텁고 단단하게 단련된 지방층은 일격에 무릎을 꿇게 되는 불상사를 막아주는 효과를

발휘했다. 그래도 아킬레스건은 존재하는 법, 아니 실제로 아킬레스건이 치명적인 약점 중 하나였다.

왜 그 시대에 샌들이 유행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무리 가죽으로 만들어 졌다하더라도 샌들은 역시 샌들이었다. 가뜩이나 무거운 몸을 지탱해야 했던 검투사들은 아킬레스건을 공격당하면 강력한 마취 총에 허무하게 쓰러지는 코끼리마냥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상실하고 쿵 쓰러진다. 그 다음은 간단하다. 이 남자처럼 쓰러진 상대의 목 밑을 일격, 그것으로 끝이다. 목은 비교적 지방층이 얇은 부분이고 바로 끝까지 연결돼 있어서 단번에 끝내기엔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 죽는 자에게도 그 편이 나았다. 다른 선택의 여지란 더 이상 없으므로. 이밖에도 다양한 공격 전략이 있었지만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무기도 공격 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됐다. 가령 그가 지니고 있는 칼이 둘로 갈라진 칼은 목을 찌를 때 목젖의 양쪽을 겨냥해 칼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물론 아킬레스건을 공략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무기도 있다. 낮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훨씬 길고 양날이 모두서 있어 끝보기에도 무시무시하다. 길고 두꺼운 목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철퇴는 주로 머리를 부수기 위한 것이며 초승달 모양의 날을 달고 있는 창은 목이나 무릎이 타깃이다. 세상의 모든 무기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상대에게 치명적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방법을 찾으며 진화한다는 사실은 그 시대에도 유효했다.

이상이 그가 똥똥한 이유고 죽음에 이른 사연이다. 영화에서 보았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그의 이야기는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어쩌면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동정심이 생긴 탓인지도 모른다.

“결국 이렇게 죽어버렸지만 검투사는 정말 멋진 직업이야. 일부러 살을 찌우려고 말이나 콩 같은 곡물들을 잔뜩 먹어대는 것은 정말 고역이었지만 뭐 그만큼 근사한 대접을 받았으니까. 싸움에 이긴 날에는 발광하며 물러드는 여자들 때문에 아주 귀찮아 죽을 정도였지. 쿵쿵.”

“가만, 검투사들은 노예신분이 아니었나? 영화에서 보면 상당히 비참한 생활을 하던데...”

“정말 후세 인간들의 상상력이란. 이봐, 우리 시대에 버금가는 신분이었다고. 물론 나 같은 외국인에겐 로마시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주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어. 물론 경기에 이기면 상금도 두둑했고, 죽지 않기 위해선 매일 훈련을 게을리 하면 안 됐지만 먹고사는 게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 권력이 있다고 죽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 자고 일어나면 암살 소식이었지. 그게 힘있는 녀석들의 생존방식이었어. 죽지 않으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 우리와 전혀 다를 게 없었지. 힘이 없는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흠쳐야 하고 흠치기 위해서, 혹은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했어. 어쩌면 자네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결국엔 모든 것이 죽기 아니면 살아남기니까.”

그는 오래된 바게트 빵처럼 단단하게 부푼 배를 툭툭 치며 말했다. 둔탁하고 슬픈 소리가 났다. 너무 비관적이다. 비약도 심하다. 하지만 어쩌면 그의 말대로인 지도 모르겠다. 죽음이 바로 코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지 않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일이다. 숨죽이고 언젠가 모습을 드러낼 채비를 하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눈앞에 있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로 인해 누군가가 고통 받고 있지 않다는 보장은 없다. 설사 당장에 그 누군가가 죽지 않더라도,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검투사로서의 그의 삶과 나의 삶이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을 지도 모른다.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의 도태는 곧 죽음이라고 가정한다면 말이다. 나아가기보다 도태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쪽이 지금 우리들이 사는 모습에 더 가깝지 않을까.

검투사들은 죽지 않기 위해 살을 찌웠다면 우리들은 도태되는 것이 두려워 살을 뺐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지 못함도 도태의 조건이다. 어느 쪽을 이유로 정하든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검투사들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면 우리들 중 누군가는 도태되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칼을 들이댄다. 코를 높이고 턱을 깎고 지방을 빼내고 온갖 보형물들을 몸 속에 집어넣으며 매일의 전투에 임한다. 도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곧 경제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 생존의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된다. 그의 말따따나 전혀 다를 게 없다.

그는 그리운 듯 말없이 경기장을 바라보았다.

“여긴 자주 찾아오나?” 내가 물었다.

“종종.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것은 무척 오랜만이야.”

그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영광이군. 그리고 고마워. 덕분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

“그것 참 다행이군. 우리 검투사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전해 줬으면 좋겠어. 멋진 일이었다고 자부하고 있거든.”

“약속하지. 어차피 믿는 것은 그들의 몫일 테지만. 참, 그런데 이름이 뭐지?”

대답이 없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처음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아무런 기척도 없이 모습을 감췄다. 그의 퇴장과 동시에 고양이 두 마리가 다가왔다.

“러셀 크로처럼 늘씬하게 잘 빠진 검투사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인가 봐.” 두 고양이는 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살펴더니 이내 내 가방에 관심을 보였다.

“지금의 우리들이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란 이야기지.”

간식으로 준비한 과자를 나눠주자 두 고양이는 과자와 다투기라도 하듯 게걸스럽게 먹어치웠다. 많이 먹고 살찌거라. 과자를 몽땅 먹어 치운 녀석들은 내게 먹을 것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눈치 채고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다시 누군가를 찾아 떠났다. 셀서스 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이미 정오의 순례자들로 가득했다. 아직 태양은 높이 떠 있었고 하늘은 무심한 듯 높고 새파랗기만 했다. 죽음이란 단어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화창하고 기분 좋은 날씨였다.

동 정



수 상

▲申榮均(치의학48-55 신영예술 문화재단 이사장)=지난 11월 21일 대중문화 예술의 날 기념식에서 은관 문화훈장 수훈.

▲李吉女(의학51-57 가천대 총장·가천길재단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11월 25일 과학 언론인의 밤 행사에서 한국과학기술자협회로부터 雲南과학진흥상 수상.

▲金明國(치의학54-58 모교 치의학과 명예교수)=지난 11월 22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으로부터 제10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공로부문) 수상.

▲鄭根謨(물리55-59 한국전력공사 상근교수)=지난 11월 22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으로부터 제10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공로부문) 수상.

▲鄭英彩(수의학56-60 중앙대 명예교수)=지난 11월 22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으로부터 제10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학술부문) 수상.

▲趙東一(불문58-62·국문66졸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지난 11월 30일 民世安在鴻선생 기념사업회로부터 제2회 민세상(학술연구부문) 수상.

▲李東和(외교59-63 서울신문 사장)=지난 11월 25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동중·고 개교 71주년 기념 '경동인의 밤'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경동인상 수상.

▲金芝河(미학59-66 동국대 석좌교수·시인)=지난 11월 30일 民世安在鴻선생기념사업회로부터 제2회 민세상(사회통합부문) 수상.

▲夫庚生(농생물60-64 모교 농생명공학부 명예교수)=지난 11월 22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으로부터 제10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공로부문) 수상.

▲朴興日(영어교육60-64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회장 겸 이사장)=지난 11월 12일 직장선교 창립 30주년을 맞아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전문인선교대상 수상.

▲李炳勳(의학60-66 대한의사협회 교문)=최근 국제라이온스협회 왕큰 탐 회장으로부터 라이온 최고 영예인 쉐브론상 수상.

▲郭炳晚(기계공학63-67 KAIST 교수)=지난 11월 22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으로부터 제10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학술부문) 수상.
▲任善基(화학공학64-69 KAIST 교수)=지난 11월 22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으로부터 덕명한림공학상 수상.

▲金鍾信(기계공학64-72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지난 11월 18일 한국생산성학회로부터 제16회 한국생산성 CEO 대상 수상.

▲朴世逸(법학66-70 前모교 국제대학원 교수)=지난 11월 9일 島山安昌浩선생 탄신 1백33주년 기념 도산의 밤 행사에서 도산교육상 수상.

▲金得俊(약학66-70 모교 약학과 교수)=지난 11월 22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으로부터 제10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학술부문) 수상.

▲洪起俊(화학공학69-73 한화케미칼 사장)=지난 10월 31일 제3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 수훈.

▲許壽永(화학공학70-74 케이피 케미칼 대표)=지난 11월 17일 에너지절약 촉진 대회에서 은탑산업훈장 수훈.

▲李相雲(섬유공학70-76 효성 부회장)=지난 11월 11일 제25회 섬유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徐永鉅(약학71-75 모교 제약학과 교수)=지난 11월 7일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제42회 학술대상 수상.

▲尹永斗(기상71-78 아시아나항공 사장)=지난 11월 22일 유엔 글로벌 콤팩트 어워즈 시상식에서 '새천년 개발 목표상' 수상.

▲李秀滿(농공학71-78 SM엔터테인먼트 회장)=지난 11월 21일 대중문화예술의 날 기념식에서 은관 문화훈장 수훈.

▲金石華(의학78졸 모교 성형외과학교실 교수)=지난 11월 3일 대한민국 IT Innovation 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金鍾鶴(회화73-80 세종대 교수)=지난 11월 10일 서울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제23회 李仲燮미술상 수상.

▲沈慶昊(국문75-79 고려대 교수)=지난 11월 4일 한문학자인 淵民李家源선생을 기려 제정한 제1회 연민학술상 수상.

▲申熙泳(의학74-80 모교 소아과학교실 교수·연구처장)=지난 10월 22일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총회에서 '학술공로상' 수상.

▲安洋玉(체육교육75-79 서울교대 교수·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지난 12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올해의 서울시 문화상(체육부문) 수상.

▲李蓮姬(미생물76-80 서울여대 교수)=지난 11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 수여하는 여성과학기술자상(진흥부문) 수상.

▲李仁用(동양사학76-83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팀장)=지난 11월 22일 한국 PR협회로부터 올해의 PR인상 수상.

▲陳銀淑(작곡81-85 서울시립교향악단 상임작곡가)=지난 12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올해의 서울시 문화상(서양음악부문) 수상.

▲趙敏行(화학83-87 고려대 교수)=지난 11월 22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으로부터 제10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학술부문) 수상.

▲孫駿祐(사회04-11 모교 사회학과 석사과정)=지난 11월 25일 서울 저동 인제대학원대학교에서 제1회 仁濟정년상 대상 수상.

▲趙亮鎬(AMP 29기 한진그룹 회장)=지난 11월 22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11 카타르 피스 앤 스포츠 탁구컵대회'에서

셰이크 알 탄니 카타르 체육회장으로부터 공로패 수상.

▲成始結(ACAD 55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지난 11월 11일 한국항공우주법학회가 수여하는 항공부분 대상 수상.

▲崔圭鉉(IFP 1기 하쿠호도제일 대표)=지난 11월 9일 대한민국 광고대상 시상식에서 웅진씽크빅의 '바른 교육 큰 사람' 캠페인 광고로 2개 부문 대상(TV영상부문, 라디오CM부문)과 은상(인쇄부문) 수상.

인 사

▲郭永驤(토목공학56-60 도화종합기술공사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11월 24일 한국환경한림원 창립총회에서 이사장에 선임.

▲卞重錫(경제60-64 한국감사협회 부회장)=지난 10월 26일 아시아내부감사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愼鏞碩(농화학61-67 2014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지난 11월 11일 인천 개항 박물관 명예관장에 위촉.

▲梁豪承(축산65-69 前CJ제일제당 부사장)=최근 국제구호개발기

구 한국월드비전 회장에 선임.

▲金鍾大(정치67-71 前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대구가톨릭대 겸임 교수)=지난 11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

▲文龍麟(교육67-71 前교육부장관·모교 교육학과 교수)=지난 11월 1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에 선임.

▲李相垠(전기공학68-72 아주대 교수)=지난 11월 24일 한국환경한림원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임.

▲申相圭(법학68-72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지난 11월 14일 동덕여대, 동덕여중·고, 성덕중 등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동

덕여학단 이사장에 선임.

▲李東福(국악68-76 경북대 교수)=지난 11월 18일 임기 2년의 국립국악원장에 임명.

▲金仁圭(정치69-73 KBS 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1월 8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8차 아시아태평양 방송 연맹

(ABU) 총회에서 한국 방송 사상 처음으로 제13대 회장에 선출.

▲曹尙鎬(경영69-73 삼립식품 사장)=지난 11월 7일 서울대와 SPC그룹이 공동 설립한 낙농회사인 SNS데어리 초대 대표이사에 선임.

▲趙信燮(응용수학70-74 모교 통계학과 교수)=지난 11월 7일 임기 2년의 한국통계학회 제21대 회장에 선출.

▲李舜鍾(응용미술70-74 모교 미대 학장)=지난 11월 10일 한국디자인총연합회 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선임.

▲張太平(사회70-77 前농림수산식품부 장관·미래농수산실천포럼 회장)=지난 11월 18일 한국마사회 제33대 회장에 취임.

▲吳世正(물리71-75 모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지난 11월 25일 임기 5년의 기초과학연구원 초대 원장에 임명.

▲尹在錫(화학교육71-75 국제전략연구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2월 1일 인터넷신문 프레스이안 이사에 선임.

▲卓民齊(항공공학72-76 KAIST 교수)=지난 11월 7일 임기 1년의 한국항공우주학회 제25대 회장에 선출.

▲王圭彰(의학73-79 모교 신경외과학교실 교수)=지난 10월 16~20일 인도 고아에서 열린 제39회 세계소아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

▲鄭相結(사회78졸 충남대 교수)=지난 11월 15일 충남대 제17대 총장(임기 2012년 1월~2015년 12월)에 선출.

▲金載弘(수의학74-78 모교 수의학과 교수)=지난 11월 1일 임기 3년의 대한수의학회 제26대 이사장에 취임.

▲洪錫禹(무역74-80 前AT커니 한국지사 부회장·KOTRA 사장)=지난 11월 17일 지식경제부 장관에 취임.

▲權東一(금속공학75-79 모교 재료공학부 교수)=지난 10월 26일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위촉.

▲尹義堉(금속공학79-83 모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부원장)=지난 11월 17일 모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에 선임.

▲白善璣(대학원81졸 성균관대 교수)=지난 11월 21일 임기 3년의 아시아태평양커뮤니케이션학회(PACA) 회장에 선출.

▲金東柱(경제80-84 前정보통신정책학회 편집위원장·고려대 교수)=지난 11월 21일 정보통신정책학회 제11대 회장에 선출.

▲金度演(신문81-85 국민대 교수)=지난 11월 18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임기 1년의 제7대 회장에 선출.

▲柳冥基(정치81-85 前서울시 디자인기획관·한강사업본부장)=지난 11월 2일 서울시 대변인에 임명.

▲韓惠進(가정관리81-85 前외교통상부 정책홍보과장)=지난 11월 6일 외교통상부 부대변인에 임명.

▲沈桂鎭(AMP 36기 천마콘크리트 회장)=지난 11월 4일 사단법인 밝은사회국제클럽 한국본부 제11대 총재에 선출.

▲洪良浩(ACAD 63기 前통일부 차관)=지난 10월 10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취임.

▲權哲賢(SGS 3기 前국회의원·前駐일본 대사)=지난 11월 8일 세종재단 및 세종연구소이사에 취임.

행 사

▲鄭世煜(법학56-60 前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명지대 명예교수)=지난 12월 7일 서울 압구정동 토파르홀에서 독창회 열고 '돌아오라 소렌토로', '물망초', '그리운 금강산', '축배의 노래' 등을 공연.

▲俞東濤(잠사56-60 先農會 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 지난 11월 24일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농업의 오늘과 내일 논의.

▲金載姪(회화56-60 서양화가)= 지난 11월 23~29일 서울 인사동 KOSA space에서 남동생 김재현 씨와 함께 '여기, 오소서...'를 주제로 두 번째 남매전 개최.

▲申秀貞(기악59-63 前모교 음대학장·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지난 11월 6일(서울 예술의 전당), 12월 8일(서울 서초동 모차르트홀) 베토벤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타나 전곡 연주회 개최.

▲尹鍾龍(전자공학62-66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지난 11월 1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1회 전자정보기술산업 특허경영대상 시상식 개최.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 지난 11월 7일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리조트에서 '이제, 예술도 소비할 때다'라는 주제로 수원예술인 심포지엄 개최.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 지난 11월 24일 서울 태평로 뉴국제호텔에서 '남북한 교류에 따른 중헌문

제:쟁점과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월례발표회 개최.

▲趙英男(성악64입 가수 겸 화가)=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서울 신사동 극동갤러리에서 '극동에서 온 꽃'을 주제로 전시회 개최.

▲李光澤(행정68-75 국민대 교수)=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연대경제포럼(ASEF)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현황과 과제'로 주제발표.

▲李潤植(응용화학70-74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한국공업화학회장)= 지난 11월 2일 가천대에서 한국공업화학회 추계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裴仁俊(철학70-74 동아일보 주필·관악언론인회 회장·본보 논설위원)= 지난 12월 4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종합편성TV '채널A'의 대담프로그램 '대담한 인터뷰' 진행.

▲李長熙(대학원75졸 한국외대 교수·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장)= 지난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시민포럼 개최.

▲金外淑(가정관리72-76 한국방송통신대 교수·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회장)= 지난 11월 19일 서울 동송동 한국방송통신대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지원관

리전략'을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廉寶英(기악72-76 서울교대 교수)= 지난 11월 30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슈베르트, 쇼팽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파인트리클럽 총재·관악회 이사)= 지난 11월 19일 서울 논현센터 강당에서 클럽 창립 53주년 기념행사 및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수여식 개최.

▲司空珍(무역75-79 한양대 교수·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지난 11월 17~18일 대구 인터بل고호텔에서 '건강 1백세 시대의 보건 의료정책' 학술대회 개최.

▲趙源東(경제75-80 한국조세연구원장)= 지난 11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개최.

▲林海京(기악77-81 충남대 교수·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 지난 10월 21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공연센터연합회(AAPPAC) 총회에서 2013년 대전 유치 확정.

▲朴元雨(경영78-82 모교 경영학과 교수·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지난 11월 11일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 개최.

▲金和林(기악77입 매일클래식 음악감독·바이올리니스트)= 지난 11월 19일(평촌아트홀), 20일(마포아트센터), 26일(사천시문화예술회관) 제15회 매일클래식 공연 개최.

▲黃仁子(대학원78-82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영산대 겸임교수)= 지난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동 중소기업협관에서 '여성정책 에피소드55' 출판기념회 개최.

▲鄭共周(경제79-83 성균관대 교수·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지난 11월 25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교육 및 상담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 참가 명부를 씁니다 ■

- ▲禹麟根(경성약전37졸 모교 명예교수)= 11월 22일 별세(97세)
- ▲朴炳善(역사교육46-50 재불 서지학자)= 11월 23일 별세(83세)
- ▲韓東桓(화학공학49-56 前기흥기업 대표)= 11월 16일 별세(81세)
- ▲尹晟老(사회교육53-57 前성동고 교장)= 11월 9일 별세(82세)
- ▲崔在京(치의학53-57 최재경치과의원장)= 11월 18일 별세(81세)
- ▲權五琦(법학53-57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11월 3일 별세(79세)
- ▲閔丙穆(회화55-59 서양화가)= 11월 9일 별세(80세)
- ▲金陽模(법학55-59 前신아화학 전무)= 11월 20일 별세(79세)
- ▲姜明漢(기계공학55-59 前삼성자동차 부사장)= 11월 11일 별세(76세)
- ▲崔弘圭(사회교육64졸 前교원학원 대표)= 11월 13일 별세(72세)
- ▲柳會振(기계설계78-82 前동아대 교수)= 11월 10일 별세(52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 난설현

— 崔文僖 지음



현'을 펴냈다.

이 책은 16세기 조선 중기의 천재 여류시인 허난설헌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 난설현의 삶과 내면을 꼼꼼하게 풀어내며, 각 장면을 한 편의 세밀화처럼 표현했다.

崔동문은 난설현을 단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시인으로만 보지 않고, 그녀의 시편들 뒤에 담긴 삶의 질곡까지 들여다본다. 시를 쓰는 순간에만 막막하고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녀, 규범의 족쇄와 규방 속 고통으로부터 날아올라 크고 넓은 세상을 꿈꾸었던 그녀의 시편들을 만날 수 있다. <다산책방刊·값13,000원>

■ 세계는 한 권의 책

— 李海旭·金聖心 지음



지난 1993년 KT 사장에서 은퇴한 후 두 달만에 배낭여행을 떠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여행에 나선 이후 17년만인 2010년 기네스 한국 기록을 담당하는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전 세계 1백92개의 독립국가를 여행한 최초의 한국인으로 인정받은 李海旭(상학57-63)동문이 산부인과 의사 출신의 아내 金聖心(의학57-63)동문과 함께 저술한 여행기.

저자가 전 세계 여행지에서 만난 새로운 문화와 자연, 그리고 낯설지만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다양한 모습으로 정겹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전 세계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 저자가 여행 중에 촬영한 사진을 풍부하게 실어 생동감이 넘친다. 저자와 함께 1백45개국을 여행한 아내의 글도 실었다. <두베刊·값16,500원>

■ 등반이

— 吳世鈞 지음

한국의사수필가협회 吳世鈞(의학59-65)고문의 네 번째 수필집. 이 책은 ‘용대이’, ‘방학동 은행나무’, ‘한여름 밤의 꿈’, ‘廚夫



일기’, ‘연’ 등 총 다섯 장으로 구성돼 40여 편의 작품을 담았다. 표제작 ‘등반이’에서 吳동문은 허리가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가족의, 아내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어깨를 으쓱대며 살아왔지만 정작 아플 때 확실하게 등반이가 되어준 건 오히려 아내였다며 나이 들면서 점차 무뎠던해져가는 아내와 나이지만, 그래도 부디 오래도록 함께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적고 있다. <수필과비평사刊·값12,000원>

■ 2011 최신 북한법령집

— 張明奉 편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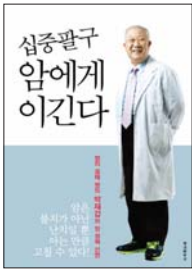
이 책은 김정일체제하에서 추진된 법제정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법령들을 총망라했다.

여기에는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들뿐만 아니라 하위법규인 외국투자관련법 시행규정들과 남한과 관련성이 많은 경제특구 및 경험부문 시행규정들도 수록돼 있다.

이를 통해 북한체제의 본질과 특성을 파악하고, 북한 사회 및 경제생활의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법연구회刊·값120,000원>

■ 심중팔구 암에게 이긴다

— 朴在甲 지음



이 책은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쉽고 현실적이며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암 예방법을 제시한다.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하고, 간염 예방백신과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정기검진을 통해 암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식생활에 주의하는 등 암 예방수칙 7가지를 소개한다.

차교수는 암은 죽을병이 아니라 극복이 가능한 병임을 이야기하며, 금연과 백신접종, 정기검진 등 기본적인 건강 상식만 잘 지켜도 암으로 사망할 확률을 70

%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동아일보사刊·값13,000원>

■ 학생 체벌과 교육

■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치료

— 金正輝 편저



로 체벌 논란의 본질과 문제점, 체벌 찬반론의 내용, 학교에서 체벌이 성행하는 이유,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지각 향상, 외국에서는 학생 체벌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체벌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다뤘다.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치료’는 아동 심리치료 치료계획서와 연관되는 34가지 문제행동에 관한 경과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다. 내담자의 증상과 중개 개입 상황을 포함한 1천개 이상의 경과기록을 담고 있으며, 내담자의 구체적 상황이나 치료 상황에 맞게 재빨리 적용할 수 있는 경과기록을 담고 있다. <한국학술정보刊·값48,000원/시그마프레스刊·값23,000원>

■ 독일문학과 리얼리즘

— 金泰賢 지음



순천향대 부총장, ‘실천문학’ 편집위원·이사로 활약한 문학평론가 金泰賢(독문57-81 순천향대 교수)동문이 독일의 시적 리얼리즘의 대변자인 폰타네, 서사극의 대가이자 진보적 문학정신의 대변인인 브레히트, 독일의 분단과 통일을 온몸으로 겪고 이를 문학으로 조형한 이 시대의 독일 지성인인 크리스타 볼프와 귄터 그라스 등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그들의 문학 정체를 밝힌다.

이 책은 외국문학을 구경꾼처럼 건조하게 분석하거나 안내원처럼 산만하게 소개한 글이 아니라 선명한 입장을 견지하며 독일문학을 흥미롭게 분석하고 해석했다. <이담북스刊·값17,000원>

공연

■ 孔植媛 피아노 독주회

— 12월 29일 대구 우봉아트홀



피아니스트 孔植媛(기악92-96)동문(사진)이 12월 29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우봉아트홀에서 귀국독주회를 갖는다.

미국 보스턴 콘서바토리 석사과정, 서던캘리포니아대 음대 연주자과정 및 박사과정을 졸업한 孔동문은 이날 하이든, 베토벤, 바흐, 쇼팽, 리스트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음연 3436-5929>

■ 허익수 거문고 독주회

— 12월 29일 부암아트홀



경기도립국악단 수석단원인 허익수(국악96-02)동문(사진)이 12월 2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부암동 부암아트홀에서 거문고 독주회를 연다.

동아음악콩쿠르 거문고부문 금상을 비롯해 한국음악협회 주최 서울국악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허 동문은 이날 다스름,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 김일규류 아쟁산조 병주, 시나위 등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부암아트 391-9631>

■ 공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 崔泳美 지음



축구구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한 崔동문은 축구 관련서는 물론 영국 잡지 월드 사커까지 구독하며 열혈 축구팬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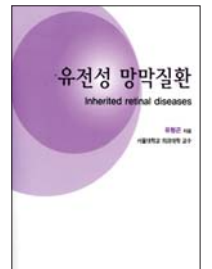
이번 에세이에서는 맨체스터, 볼턴, 바르셀로나, 함부르크, 로마 등 축구의 성지에서 느낀 감상과 박지성, 이정용, 손흥민, 정대세 등 스타를 만나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소개했다.

또 유럽 축구와 너무나 대조적인 분위기의 국내 K리그에 대한 단상과 2010년 남아공 월드컵까지 최근 세 차례 경험한 월드컵 경기를 토대로 각 나라 대표팀의 스타일과 응원단 분위기 등 깊이 있는 축구 정보를 제공한다. <이순刊·값13,000원>

■ 유전성 망막질환

— 柳亨坤 지음

모교 안과학교실 柳亨坤(의학85-91)교수가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룩한 연구성과와 임상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리한 책.



국내 안과 의사는 물론 환자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전성 망막질환의 총론으로 원인 유전자 동정, 망막질환의 분자유전학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뤘으며, 황반부를 침범하는 유전성 망막질환과 유전성 유리체 망막질환 등에 대해 담았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29,000원>

■ 인간이 만든 질병 구제역

— 姜秉鐵 옮김



서를 우리말로 옮겼다.

이 책은 백 년 이상 국가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공포와 비극과 슬픔을 몰고 왔던 구제역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구제역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이해당사자들의 태도와 역학 관계에 따라 구제역의 심각성과 대처 방법은 물론, 그 정의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져 온 역사를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삼과지식刊·값14,000원>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1년 9·10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1. 6. 18~11. 15) · 일반 (2011. 6. 17~11. 15)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상임부회장 孫一根= 1백만원
△부회장 尹勤煥= 50만원
△부회장 李世中= 50만원
△부회장 丁海昌= 30만원
△부회장 鄭潤煥= 1백만원
△부회장 孔大植= 1백만원
△감 사 朱成民= 30만원

관 악 회

△이 사 趙弼濟= 30만원

상임이사

△李萬儀 현대원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말길 AMP35
△고영기 사대72 △구창수 치대52
△김 구 문리58 △김영훈 법대83
△김홍배 상대66 △나성웅 공대72
△남궁락 SGS17 △마상덕 공대69
△박상윤 공대70 △박영호 공대78
△박은자 사대64 △박진규 ASP5
△손현수 농대76 △송규현 인문81
△이경일 AMP61 △임두호 공대68
△전웅진 공대64 △조영희 의대56
△조용완 공대68 △최박문 AFB1
△최상범 교대원72 △최인철 의대81
△최지은 의대84 △호문혁 법대68

(일반) △강교진 AFP8
△권순만 치대78 △권중환 SGS25
△김권중 IFP5 △김기주 AIP38
△김낙완 공대91 △김동진 공대68
△김보경 경영09 △김상곤 법대86
△김상덕 AFP7 △김석근 大院81
△김성오 의대87 △김안국 사대78
△김영임 간호96 △김영현 인문82
△김영희 사회74 △김자영 간호93
△김재형 경영89 △김정기 공대64
△김종훈 자연86 △김지훈 사대04
△김철수 문리72 △김관수 공대53
△김하경 의대70 △김한곤 공대81
△김현식 공대77 △김현주 법대86
△김현남 문리47 △김혜경 생활77
△김홍숙 약대73 △나윤환 공대95
△남상욱 농대78 △노복길 공대83
△류재열 AFP7 △문기영 인문04
△문선희 의대89 △민병무 치대74
△민성원 경영07 △박 원 공대98
△박동준 공대71 △박성희 의대52
△박윤주 약대84 △박종운 AFB7
△박주영 치대00 △박진우 약대07
△박태영 법대61 △배순훈 공대61
△성희업 자연82 △손정락 大院82
△손정현 법대06 △신수희 미대62
△신홍현 공대84 △신효철 음대69

△심보선 사회88 △심성훈 사회82
△인병용 의대05 △안효진 농대84
△염상섭 문리66 △오세범 공대72
△오영근 법대75 △오영환 농대71
△오재식 공대67 △오정한 법대91
△오준서 SPAR4 △옥채원 공대09
△유고운 치대03 △유조안 사회94
△윤미향 약대88 △윤수관 AMPP9
△윤지원 음대94 △이국희 법대02
△이금세 문리59 △이기전 AMP71
△이명근 의대58 △이병식 사대80
△이상린 공대55 △이상준 의대60
△이영석 사대77 △이은영 IFP5
△이은정 농대81 △이재균 법대91
△이정호 법대79 △이청원 공대67
△이현행 의대07 △이효근 자연80
△임 혁 사대86 △임찬우 공대02
△장홍석 사회00 △전수진 법대86
△정기승 법대49 △정무조 공대57
△정민수 법대63 △정승원 사대06
△정의홍 의대75 △정인희 의대70
△정찬모 사대66 △조시형 치대82
△조용진 공대94 △조정환 치대89
△조현숙 사대93 △진길부 농대66
△진상현 環院98 △진화근 AFP8
△채수영 ASP2 △최만희 사대57
△최명근 AIP40 △최병채 GLP23
△최원영 經院93 △최유리 미대06
△최태동 농대71 △최형은 생활05
△추승엽 MBA07 △하용수 의대63
△한미숙 음대77 △한승미 사회82
△한재석 MBA09 △홍장미 의대94
△홍정임 치대87 △황우형 공대63
△황준연 음대68

이 사

◆인문대 △강지수82 △강현구79
△김원한81 △김학래74 △노 찬74
△변원일67 △소대봉84 △안형환82
△오세중79 △이동근76 △홍성윤73
◆사회대 △강전석69 △권용발74
△김대희81 △김소용79 △김원진72
△류성록82 △박 철81 △박찬욱72
△서동영79 △이계성77 △이동훈74
△이두희77 △이상희77 △전승철81
△정봉교72 △정응근87 △정해영72
△조성원88 △주진혁77 △한병송85
◆자연대 △윤용하84 △이경수75
△이덕희77 △진 민78 △최진혁71
◆간호대 △김명숙61 △박상연68
△윤영희75
◆경영대 △김성민81 △김수환82
△김홍섭79 △이영민83 △이해성73
△최석원70
◆공대 △강창렬79 △강희신85
△곽병현67 △구창용60 △권수웅57
△김광옥56 △김국진66 △김대모61
△김덕재54 △김명린61 △김명수73
△김석홍81 △김선복62 △김성태53
△김용원70 △김윤수75 △김인준68
△김종구68 △김종근54 △김주홍47
△김태영68 △김태준57 △남장수64

△노석준76 △문영기69 △민경택71
△박광순74 △박동서61 △박승훈72
△박신동65 △박영복63 △박찬백67
△박홍용73 △박흥철51 △배재흠70
△백명철79 △백성기67 △백승욱58
△부준홍74 △설원길48 △손경업65
△손중권71 △승효상71 △신원기66
△심한배71 △심혜경53 △안사은57
△안상형69 △양기정67 △여인갑64
△오화석51 △유승준63 △유재운78
△윤기준69 △윤맹현66 △윤병화58
△윤조덕69 △윤종섭84 △이남순72
△이문화59 △이성팔72 △이영우79
△이용경60 △이원표72 △이응숙76
△이재홍72 △이종훈53 △이종훈55
△이종희67 △이태순79 △임서환67
△임석철76 △장동욱49 △장석주82
△정수현69 △정순전66 △정옥희52
△정대현73 △조규남72 △조영주74
△조유근67 △조재현75 △조형제51
△차근오76 △최무혁67 △최병홍78
△최상현77 △홍기준69
◆농대 △공홍표78 △곽지상52
△권오진52 △김완기65 △김윤경70
△김일종69 △김태영82 △박만근55
△박창언80 △배기식54 △사공문72
△서기호60 △서원호74 △송경민75
△양재승70 △염광섭83 △원중식60
△유부열66 △유이종71 △유해강86
△윤경섭65 △윤여창53 △윤오섭48
△이건일60 △이대진65 △이동선73
△이재기53 △이재진65 △이치섭56
△이희수80 △임순만62 △임종완70
△임형백89 △정을규61 △조규태74
△조민식67 △최영태65 △한갑준52
◆문리대 △구봉희62 △권민웅62
△권월순65 △김 승61 △김관식56
△김동선57 △김상하45 △김수진57
△김영순71 △김영한62 △김진호68
△김호준61 △남궁견59 △류성희61
△박기택70 △박의승60 △박홍식66
△송대성69 △송진혁61 △안국정63
△안병균67 △안소연65 △오병남59
△오제운59 △원용대48 △유양수57
△이경형66 △이기원50 △이성덕56
△이승렬67 △이시종67 △이연희51
△이영훈64 △이원홍52 △이정윤54
△임병석54 △임형택62 △장영수63
△장중석70 △정병일62 △정석권66
△정소성64 △정영운60 △정목자61
△조창화57 △홍영남60 △홍종호62
△황경호54
◆미대 △권순형49 △김 정70
△김규봉88 △김영대67 △김제응60
△이동영76 △전민숙74 △조남석85
△조성애64 △한근석81
◆법대 △강현안74 △고흥달68
△권영상75 △김권택63 △김동원52
△김석기64 △김석영51 △김승욱60
△김신택57 △김영재57 △김완섭65
△김용환60 △김인중56 △김정후57
△김계식77 △김종구59 △김종철53
△김진관71 △김진우52 △김찬식68

△김태현46 △김태현84 △김호웅72
△류기홍58 △민수광60 △박국수67
△박상근60 △박일환69 △박찬호77
△박창현73 △박휴상65 △서정석65
△서정신58 △석광현75 △성낙인69
△성시웅77 △송창현69 △신규태56
△신영수70 △신종근87 △신현일77
△심우영59 △안경환66 △안용득62
△안재호87 △오세희58 △유 훈49
△유재선63 △유정호62 △윤동윤57
△윤성태61 △윤신승88 △이건종72
△이광택68 △이동명75 △이세형68
△이영욱52 △이은영69 △이인기74
△이재근82 △이재창56 △이춘성74
△이현욱78 △임종훈73 △임태수56
△장상익72 △정기용77 △정대권75
△정대철62 △정덕장59 △정덕흥68
△정세용74 △정해운57 △정호영66
△조근호77 △조동주53 △조문부55
△조정규68 △지홍원58 △최병륜56
△최영도57 △한경구61 △한경국57
△함영업57 △한병무52 △홍광식67
△홍진태52 △황선태66 △황영목70
◆사대 △강영삼59 △강철용69
△김광수72 △김성대59 △김승재71
△김영애64 △김용근65 △김원용74
△김진규58 △김천수58 △김학천59
△문영식73 △박남기50 △박영태67
△박태섭76 △박형준60 △박홍일60
△성 현69 △신용래52 △안희수61
△염영주66 △원혜영71 △윤웅섭61
△이경복69 △이기용68 △이민자59
△이상락67 △이선준48 △이재혁63
△이찬근74 △이창득71 △이환기81
△임광수68 △임해규79 △임향순60
△장종택55 △전의숙68 △정강주69
△정광삼58 △정광현71 △정선영63
△정지오73 △조규권76 △주기성72
△최병순69 △최성재85 △최대상53
△한기선71 △형남규67
◆상대 △강원구54 △권영정72
△권태인46 △김덕명60 △김동식61
△김명수73 △김명준62 △김상희66
△김영춘71 △김영환54 △김원길61
△김창달53 △김태겸70 △김하두64
△김항덕59 △남상덕69 △박 간68
△박성석61 △박수환55 △박용성59
△박태하58 △배홍규53 △서승원63
△서충석71 △송병락59 △송필호68
△심정구53 △안재원59 △유진무62
△이갑현61 △이계안71 △이국희56
△이대우72 △이영서61 △이용성56
△이용휘57 △장병구64 △장윤문65
△정 용61 △정주호65 △정태욱62
△정형배64 △조영삼71 △최수일55
△표계영58 △황규백63
◆생활대 △박성희73 △서선주81
△손경희66 △정해자61 △조혜욱59
◆수의대 △김창수64 △배상호64
△신현일57 △이수창61 △이원철74
△장광호75 △조휴익59 △지차호70
△한정희79
◆약대 △김기술71 △김상조54

△도상복61 △박사룡64 △백성기59
△신화용46 △이용연72 △이주형67
△정경호77 △조경일64 △조용현74
△한정연85 △허 상58 △홍성한76
◆음대 △김혜중69 △남지현85
△변유경82 △손국임64 △심선화72
△유신선79 △이유희68 △이준복68
△황지숙83
◆의대 △강형룡44 △권경배83
△김규한76 △김기탁68 △김기영53
△김예원68 △김은경90 △김진호75
△김태규76 △맹국영68 △박노현78
△박낙환44 △백대진74 △성상현73
△손기섭51 △송익상61 △안윤욱66
△양성범75 △양영식66 △오경균67
△오승환56 △유경삼64 △유왕성75
△윤세희68 △이관희75 △이광우76
△이병훈60 △이의용72 △이종호81
△이진호70 △장경만80 △정동철54
△조환구44 △최복식84 △최정연68
△한홍무56 △허병열60
◆치대 △권오양74 △김관식69
△박명종79 △박용준54 △박형기55
△변석두53 △성백근64 △안정모66
△양수정83 △양재호64 △이상재75
△이종혁74 △이종호79 △임용준65
△임채근53 △정원용52 △정표진81
△주나림56 △진기열77 △최육환57
△허연욱55 △홍경택64 △홍성호60
◆대학원 △구경모77 △김윤희83
△김홍렬81 △문두길87 △박동준83
△박응수81 △이정채83 △이충우84
△정기화71 △정우남81 △조대우79
△최계운82
◆경대원 △김선대72 △김한준89
△양승현71 △이상락65
◆교대원 △송향섭64
◆보대원 △구성희67 △김덕성71
△김병환65 △김종오79 △민병찬75
△황석천80
◆사대원 △석용진65 △이원형64
◆신대원 △김우룡71
◆행대원 △고충삼63 △권기성77
△김인동65 △박병련82 △박우순76
△서동훈73 △윤 영84
◆현대원 △김혜전78 △박종일84
△박형석74 △사공희상89 △정양희79
◆AMP △김세래46 △김승배45
△김홍덕54 △노태식64 △박소범23
△서종덕12 △신성우32 △심동보61
△양성욱1 △어윤태55 △유시수25
△이경태31 △이세락45 △정건택21
△정연근58 △천용택31 △최영보55
△하종근59
◆AIP △강명영20 △김덕표36
△김용태30 △김종연30 △박몽식16
△박양신20 △박한창17 △이덕영23
△이두평8 △전영하28 △정희용27
◆ACAD △김광철47 △김태완44
△원광호36 △윤원호42 △이달화24
△전경애47 △정송학54 △조주태14
△최광주55 △최종욱20
◆ABP △이 명8 △이계용2
△이관철3
◆SGS △남궁근16 △박종인5
△이래원6 △이승한11 △이윤중1
◆APC △장신현3
◆HPM △권기진8 △김강희11
△김광화9 △김재영18 △노동일7
△선덕남4 △안호원6
◆AMPP △남정명1 △이인곤2

△하영수②
◆AIC △류진국① △서희석⑬
△이경호⑦ △이인기⑪ △이일로①
△임봉순⑮ △최근수⑮ △최세근⑨
◆AFB △강복순② △김종복①
△문제민④ △박영연⑤ △엄성호⑧
◆AMPFRI △김경호⑮ △이현호⑮
△장현성④
◆FIP △문재웅⑤
◆GLP △신용식⑮ △이승규⑮
◆SPARC △강정용⑮ △김권진⑮
△민철홍⑮ △안상희⑮ △허상록⑮
△황용규⑮
◆ASP △오성환⑥

일 반

◆인문대 △강영선③ △강우석④
△김규식③ △김능구① △김덕출①
△김상범③ △김선아③ △김소희②
△김영인③ △김지은④ △김태현⑦
△류 현④ △류경아⑩ △박도원③
△박철준② △서노원① △서세림⑨
△오선아⑤ △오세규⑦ △윤나경⑥
△윤희경⑩ △이 건⑤ △이범규⑦
△이종은⑨ △이준상⑤ △이흥균⑦
△장수현⑧ △장영덕⑦ △조연수⑧
△조해숙⑤ △조홍찬⑨ △최상이⑨
△하정숙② △한상희③ △황진상⑧
◆사회대 △강철원⑦ △고지훈①
△구자훈⑦ △권태훈⑦ △권혁규④

△김강산① △김광덕② △김낙중③
△김덕인② △김성은⑥ △김영빈①
△김영생① △김원종② △김의진⑦
△김이탁⑦ △김정환⑩ △김준환⑦
△김형규⑤ △김형원② △김홍석③
△김휴철⑦ △노광일⑦ △류연택⑨
△박광호⑧ △박민수⑦ △박지우①
△박찬호⑦ △방현철⑧ △신기덕⑦
△심장현③ △양제열② △유종은⑥
△윤계근⑦ △이광오⑦ △이민경⑤
△이민형⑤ △이병래① △이상민⑧
△이선아⑦ △이성준③ △이영수⑤
△이용봉⑤ △이재덕⑦ △이정현⑨
△이치복⑦ △이현상③ △임영택⑧
△임원범③ △임일섭③ △장홍근①
△정 수③ △정구현⑥ △정성호①
△조동호⑨ △조현정⑧ △최학철⑤
△하정원③ △한상원⑦ △황진택⑦
◆자연대 △강문기⑥ △권민지⑦
△권순재⑧ △권영신⑤ △김관식④
△김미영⑥ △김재우⑥ △김종준⑤
△김지환⑨ △김필광⑤ △김혜주⑤
△김희윤⑧ △노정현④ △박경서⑦
△박대열⑥ △박현주⑦ △배기덕⑧
△봉성울④ △오세명⑦ △유영만④
△유영상⑦ △윤희식⑦ △이경임④
△이경진⑤ △이미선⑧ △이영근⑥
△이영주② △이용기⑥ △이종구⑥
△이장현③ △임재훈⑤ △장경우⑦
△장두원⑦ △장성신⑧ △장원석⑥
△장종만⑦ △전동오④ △전성준①

△정광필⑤ △정상원⑧ △정정교④
△조상규⑦ △조성일⑨ △채선규①
△채현우⑦ △최 한⑨ △최지환⑦
△최희준⑨ △황대웅⑦
◆간호대 △곽선희⑨ △박한내⑦
△성영희⑦ △유주연⑧ △이연지⑤
△이영선⑦ △이지숙① △정명자⑤
△정숙자⑥ △한영자⑥
◆경영대 △김거한⑦ △김건웅③
△김동석⑥ △김동현⑥ △김아름④
△김의준⑦ △김종우③ △김종훈⑥
△김주연③ △김준철③ △김진섭⑤
△김진택⑤ △김하일⑥ △박찬호③
△박흥권⑦ △성열우⑦ △송윤환③
△신석영⑤ △신철호② △안영옥④
△양원덕⑤ △오선영③ △윤상혁⑨
△이난샘⑨ △이성요③ △이용석⑤
△이재욱⑧ △정문철⑦ △조표훈⑤
△조형수⑨ △채훈기⑨ △최광전⑥
△최지윤⑦ △함시창⑦
◆공대 △강현종③ △고 찬⑨
△고승규⑦ △고형석⑤ △공석봉⑤
△곽덕훈⑥ △곽동수③ △곽민정①
△곽우섭⑦ △구본응⑦ △구영호⑦
△구자호⑩ △권기동③ △권순학⑥
△권오동⑥ △권용원⑦ △권은구②
△권하목⑥ △권혁중⑧ △권희덕⑦
△김 정④ △김계천⑤ △김광일⑤
△김광희④ △김구면④ △김규은④
△김기남⑦ △김길삼③ △김길호②
△김동규⑤ △김동철⑩ △김두현①

△김명신⑦ △김명호⑦ △김병진⑤
△김상호⑧ △김상환⑦ △김성균④
△김성민⑨ △김성연⑦ △김성은⑧
△김수광⑤ △김수환⑥ △김신태③
△김엽동⑤ △김영권③ △김영문⑤
△김영찬⑦ △김용근⑥ △김용기⑦
△김원섭④ △김유희⑤ △김을권⑤
△김재섭⑦ △김재열⑩ △김재화⑤
△김재환④ △김정선① △김정일⑥
△김종철⑦ △김주찬⑦ △김주호⑤
△김지환④ △김진수⑨ △김진영⑤
△김찬년② △김창락⑦ △김채형④
△김채호⑥ △김천주⑤ △김철규⑤
△김철빈⑦ △김준현⑧ △김풍오⑥
△김학기⑤ △김현석⑤ △김현준⑤
△김형건④ △김형민④ △김형전⑤
△김호진⑨ △김홍근⑦ △나인규③
△나형주⑦ △남시도⑤ △노충래②
△류세열⑥ △류지현⑨ △박동원⑧
△박동재⑤ △박명규③ △박상봉⑦
△박상서③ △박성수⑦ △박성택⑤
△박영순④ △박용택③ △박의종⑥
△박재서⑤ △박종명⑤ △박종태②
△박천경⑤ △박형호④ △방현규⑥
△백영방⑤ △백창섭⑦ △변문현③
△변수근⑤ △변정근⑤ △서성수⑥
△서세현⑤ △서영수⑥ △서정수⑧
△송대중③ △송완근③ △송형도⑦
△신달양⑤ △안기식③ △안우희④
△안정욱② △안홍삼③ △양우선⑧
△양준모⑤ △양희진② △염다일⑧
△염재성⑦ △여신영⑧ △여인선⑤
△염희택④ △오동익⑧ △오세창④
△오철석⑤ △오희근① △육유근⑦
△왕동근③ △유건환⑤ △유근중⑦
△유현준① △윤남하⑤ △윤혜립⑦
△이 석④ △이광민⑤ △이기화③
△이대양③ △이대원② △이동규⑧
△이동선⑥ △이만수⑥ △이민중⑦
△이병수⑤ △이상용④ △이상철⑦
△이성민⑥ △이승무⑥ △이영근④
△이영희⑦ △이에민④ △이용석⑥
△이용재⑤ △이원복⑤ △이원일⑨
△이운식⑤ △이재남⑤ △이재순⑦
△이정국⑥ △이정규④ △이종규⑤
△이종수② △이주영⑦ △이찬우⑤
△이창희② △이필경⑦ △이현식⑥
△이혜연⑨ △이호선⑨ △이호원⑦
△이호현⑦ △이희성⑦ △임기택⑧
△임무산⑥ △임철현⑨ △임태원④
△임현용⑥ △장령수⑨ △장석호⑤
△장지현⑥ △정 진④ △정낙현④
△정동섭④ △정동식⑦ △정동진④
△정상규⑦ △정용국⑦ △정용근⑤
△정원배⑤ △정위수② △정재길⑤
△정진삼⑥ △정치권⑥ △정대부④
△정호규⑧ △제해찬⑦ △조동기③
△조성식④ △조성지④ △조승제⑤
△조용준② △조장현⑦ △조철희⑥
△조형래⑤ △주준호④ △진준형②
△채희선⑥ △최 탄② △최광선④
△최금영④ △최동석⑧ △최상현④
△최석순⑨ △최세근⑥ △최수홍⑥
△최시정⑤ △최영박④ △최영준②
△최정근⑤ △최정희③ △최현수⑤
△최호근③ △하규성⑦ △하태광④
△한대수⑦ △한영철⑦ △한창석⑥
△허명수⑥ △허정행① △현봉섭④
△홍성재⑤ △홍성표⑤ △홍원표④
△홍종우③ △홍희선④ △황용희⑤
△황우형③ △황호남⑦

◆농대 △강남권⑧ △강병석⑦
△강병선⑧ △강예목③ △강용신④
△강인평⑤ △강정일④ △고동희⑥
△공재환⑥ △곽은주⑦ △권상대⑥
△권태걸⑦ △금지현⑥ △기상서④
△김갑근⑤ △김동익② △김명진⑤
△김상후④ △김성우⑧ △김익년⑥
△김연표⑤ △김영각④ △김영택⑤
△김원달⑦ △김이기⑧ △김인희⑤
△김재인⑥ △김종운② △김준평④
△김준호① △김지범④ △김진구②
△김진근⑦ △김진수⑦ △김태규⑥
△김태우④ △김휘천③ △김희창⑥
△남현석① △류운형⑦ △문양수②
△문현동⑦ △민인기⑦ △박경제⑦
△박동규⑤ △박동우⑦ △박상순⑥
△박상홍⑤ △박선영② △박성언①
△박수철② △박수홍⑤ △박영환④
△박용제⑦ △박윤근⑤ △박정근③
△박정문⑨ △박종선⑦ △박종우①
△박종효⑤ △박주원⑧ △박지환④
△박관규⑤ △배정웅④ △백양빈⑤
△백연수⑥ △서성원③ △서영섭⑤
△서창희④ △선홍성⑧ △손성호⑤
△송 흡③ △송계원④ △송환창④
△신동완⑤ △신서균⑤ △신인호⑧
△신정균④ △신정재⑤ △양동섭⑨
△양종성⑤ △임태영③ △여규동⑥
△오민영⑤ △오영탁⑦ △오원식③
△오종환⑥ △오준석⑦ △우창명⑥
△유병두⑦ △유신상⑤ △유유상⑥
△유운선⑤ △유일웅④ △윤석용⑦
△윤여성⑦ △윤재호⑥ △윤창원⑦
△윤희석⑥ △이 철⑥ △이 흥⑥
△이광웅⑥ △이규형⑤ △이길삼⑥
△이남호⑦ △이동규⑥ △이민경⑦
△이범일⑥ △이석순② △이성수⑦
△이세연⑦ △이세영⑤ △이수오⑦
△이순실⑦ △이승세③ △이영돈④
△이용모⑤ △이용훈④ △이운정⑥
△이운환⑥ △이지형④ △이창규⑦
△이한강⑥ △이형익④ △임동준⑥
△임병구⑥ △임승룡⑤ △임지영⑤
△임철리③ △장성종⑤ △장영진⑥
△장용인⑦ △전덕하④ △전재성⑦
△정민섭⑤ △정복현⑦ △정시식⑥
△정영관⑤ △정용규⑥ △정종수⑤
△정해각⑤ △조성규⑤ △주봉철⑦
△최동아⑥ △최동준⑦ △최동하⑦
△최주건⑤ △최진협④ △최홍립⑦
△한기문④ △한명수⑦ △한휘석⑤
△홍석인⑤ △황재순⑦
◆문리대 △강두식④ △강세원⑤
△강신표⑤ △계훈방⑥ △고문종⑦
△고상빈⑤ △고석진⑤ △고혜령④
△곽종흠④ △구준옥⑤ △김규완⑥
△김남진⑤ △김덕룡⑤ △김동준⑤
△김만옥⑤ △김명환⑤ △김무장⑥
△김봉영⑤ △김상옥⑥ △김수춘④
△김순섭⑤ △김영웅③ △김영철⑤
△김용달⑤ △김용태③ △김우철⑤
△김인관⑤ △김인철⑥ △김창락⑤
△김한도⑤ △김한배⑦ △김흥수⑦
△나종일④ △나학진④ △노영찬④
△노태돈⑦ △류민성④ △박성철④
△배태영⑦ △변상경⑥ △서광식⑤
△서병현⑤ △석종성④ △소광희⑤
△송경숙⑤ △송한오⑤ △신동호⑤
△신장호⑤ △신중성⑦ △신종균⑤
△신현영⑥ △신호순④ △심경보⑥
△심양홍④ △안원태⑤ △안화영④

△양 원⁵⁵ △양은승⁴⁷ △어복선⁵²
△엄규백⁵² △오행조⁶¹ △오현승⁶⁵
△우삼택⁶⁸ △우성식⁷¹ △우종택⁵⁴
△원인기⁶⁶ △유희형⁶⁰ △윤영식⁵⁴
△윤영호⁷⁰ △윤재문⁶³ △윤태호⁶⁶
△이대일⁶¹ △이민우⁶¹ △이상근⁵⁵
△이상근⁵⁹ △이승만⁶² △이연명⁵⁵
△이우석⁵³ △이육재⁶⁰ △이원희⁵⁵
△이종명⁵⁴ △이진희⁵⁴ △이창훈⁴⁷
△이춘기⁵⁴ △이필숙⁶⁰ △이효연⁷¹
△인오룡⁷⁰ △임광순⁶⁸ △임채호⁵⁸
△장명석⁵⁸ △장문영⁶⁴ △장병림⁴⁵
△장종화⁵⁹ △정용승⁵⁸ △정익성⁵⁷
△정춘영⁵⁰ △정태철⁵⁵ △정한택⁴⁶
△조봉계⁶¹ △조상수⁶¹ △조희근⁷¹
△주순호⁵¹ △천병희⁵⁶ △최순봉⁵⁵
△최승일⁶¹ △최완식⁵⁴ △최준기⁴⁸
△표재명⁵⁴ △한명윤⁵⁶ △한상복⁵⁹
△현영옥⁶⁷ △홍승표⁵⁹ △홍승호⁵⁷
△황봉운⁵⁸

◆미대 △강태성⁴⁹ △곽한익⁵³
△길호관⁷⁴ △김덕용⁸¹ △김민정⁰¹
△김주찬⁸⁶ △김지열⁵⁶ △김홍규⁸³
△나재민⁹⁵ △박근효⁵² △박상진⁸⁸
△박석환⁵³ △배경희⁰² △송근영⁸⁶
△신용태⁵⁹ △양혜진⁹⁹ △우상호⁸⁹
△원묘희⁵⁹ △유혜민⁰⁷ △윤상혁⁰³
△윤주원⁹⁵ △이문숙⁶⁶ △이정수⁵⁸
△장상민⁵⁹ △전성규⁸¹ △전지윤⁸⁶
△정상원⁵⁸ △정영조⁵⁵ △정인경⁸⁵
△차정화⁰⁵ △최동진⁶⁰ △최수경⁵⁹
△최은지⁰⁶ △허 훈⁵⁶ △현지연⁹³
△홍경희⁶⁶

◆법대 △강성태⁵⁴ △강재섭⁶⁷
△고영한⁷⁴ △곽노현⁷² △권 준⁸⁷
△권기수⁷³ △권선용⁷³ △김경수⁰⁵
△김경수⁸⁹ △김근태⁴⁹ △김남수⁶⁴
△김대섭⁷⁹ △김대영⁷¹ △김세돈⁷²
△김시형⁵⁸ △김영균⁵⁷ △김영기⁶⁶
△김영선⁵⁵ △김용제⁵³ △김우수⁸⁶
△김윤구⁵¹ △김윤섭⁵⁶ △김재규⁴⁹
△김종호⁸⁰ △김자이나⁹⁹ △김진석⁸⁴
△김태지⁵³ △김해영⁸³ △김현영⁶³
△김현수⁰¹ △김홍재⁵³ △민우숙⁸³
△박상길⁸² △박상옥⁷⁵ △박성규⁸⁹
△박성민⁰² △박연철⁶⁸ △박은재⁸⁶
△박재현⁰⁰ △박주환⁶³ △박지영⁴¹
△박정석⁶² △박관규⁹² △박형섭⁸¹
△박환승⁸³ △배화승⁶⁰ △백대균⁹⁹
△서범수⁹³ △서상원⁵⁷ △성달용⁶⁰
△손제연⁹⁸ △손태호⁷⁶ △송진현⁷¹
△신근식⁶³ △심우찬⁰² △안영수⁸⁴
△양승권⁶¹ △양정일⁸⁷ △엄진현⁵¹
△엄정훈⁴⁹ △예세민⁹² △오영진⁶⁵
△오전석⁷⁶ △오형환⁶⁵ △오홍석⁷¹
△오홍주⁷⁰ △유상범⁸⁴ △유해돈⁵⁵
△윤장석⁸⁹ △윤정석⁵⁵ △이 립⁸²
△이 준⁷⁰ △이경배⁵⁹ △이광재⁸³
△이관형⁵⁷ △이광수⁸³ △이교림⁷³
△이기석⁷⁶ △이기철⁷⁷ △이미희⁰⁰
△이병무⁵⁷ △이병환⁸³ △이석봉⁴⁹
△이순복⁵⁴ △이승관⁷⁸ △이승환⁵⁵
△이양순⁵⁵ △이유경⁰⁰ △이재우⁸⁸
△이주성⁷⁶ △임순묵⁵³ △임창원⁶⁴
△장 호⁶⁷ △장명관⁵¹ △장석주⁵⁵
△장지용⁹⁷ △전수진⁸⁶ △전흥현⁸⁸
△정극수⁵⁵ △정만조⁵⁵ △정수영⁵³
△정인숙⁸¹ △정재형⁵⁸ △정종국⁹⁰
△정대용⁹⁵ △정학철⁶⁴ △정형근⁶⁴
△조병직⁴⁶ △조병현⁷⁴ △조성기⁶⁸
△조세연⁵³ △조영진⁶⁶ △조희대⁷⁵

△지원훈⁶¹ △차원태⁷⁰ △최귀인⁵⁶
△최규홍⁸⁰ △최병태⁶⁰ △최우식⁷⁵
△최종모⁸³ △하성대⁴⁹ △한찬식⁸⁶
△한형석⁰⁴ △한호영⁰⁶ △함석재⁵⁷
△형대우⁶² △호영진⁵⁶ △홍정기⁷⁸
△홍종현⁶⁴ △황경진⁵² △황성진⁶⁶
△황윤주⁵² △황철규⁸³

◆사대 △강장완⁵⁸ △강현재⁷²
△고재효⁸⁵ △권경홍³⁹ △권나영⁰³
△권오현⁷¹ △권정순⁵⁹ △권태원⁶³
△권혁봉⁴⁹ △길윤상⁹⁹ △김경래⁰¹
△김기우⁷⁶ △김동주⁸⁶ △김두정⁷³
△김상수⁵⁷ △김소연⁸⁵ △김수신⁶⁰
△김수자⁶⁸ △김순동⁵⁶ △김억관⁶⁷
△김용길⁵⁴ △김용선⁵³ △김용식⁸⁰
△김우택⁵⁷ △김은숙⁵¹ △김은숙⁹³
△김은재⁴⁵ △김이성⁰⁶ △김인재⁰⁷
△김재성⁸² △김재혁⁵⁰ △김종욱³⁹
△김종화⁶⁸ △김주환⁶⁴ △김증자⁶¹
△김진철⁶⁸ △김평현⁷⁶ △김필수⁵⁷
△김혜민⁰⁴ △김혜정⁸⁵ △남윤호⁸²
△류경숙⁷⁹ △문일성⁵³ △문정대⁵³
△문제세⁷¹ △민영엽⁵⁵ △박대규⁵⁷
△박영배⁵⁴ △박옥주⁵⁰ △박종대⁵¹
△박종석⁸⁴ △박창만⁶⁵ △박희문⁵⁶
△방영선⁷⁵ △백승용⁸⁶ △서동일⁰⁴
△석종복⁷² △송재식⁴⁹ △승용기⁶⁹
△신동순⁵³ △신명자⁵⁶ △심상필⁵⁰
△오세왕⁶⁷ △오창훈⁸³ △오준근⁶⁰
△유봉호⁴⁸ △유석철⁵⁸ △유소희⁰⁶
△유양선⁵⁶ △윤미희⁰³ △윤인식⁶⁵
△윤정미⁷⁸ △이강하⁵⁵ △이계현⁷²
△이규환⁴⁶ △이기충⁵⁵ △이남구⁵⁸
△이방렬⁶⁵ △이병무⁵² △이병순⁶⁷
△이상교⁶¹ △이상규⁵⁶ △이성진⁵³
△이수찬⁵⁶ △이수장⁰³ △이시정⁵⁴
△이시훈⁵⁷ △이용현⁵³ △이우진⁵³
△이윤하⁶³ △이인희⁶¹ △이정수⁸³
△이준수⁰⁶ △이진구⁷¹ △이찬도⁵⁹
△이태웅⁷¹ △이현복⁵⁸ △이현순⁵³
△이현택⁵³ △이혜숙⁶⁸ △임수진⁸⁴
△장동수⁸² △장미숙⁸⁴ △장상균⁹⁷
△장완배⁶¹ △전경옥⁵⁸ △전종대⁷⁵
△전행현⁰⁵ △전혜연⁰⁷ △정근훈⁴⁹
△정기숙⁵⁵ △정덕영⁶² △정우상⁵³
△정희수⁴⁹ △조병완⁵³ △조성호⁷⁵
△조혁증⁷⁸ △조현철⁹² △채관석⁸⁴
△최명숙⁵³ △최천학자⁵² △하봉구⁵⁸
△하태부⁸² △한상표⁵⁶ △한함윤⁵³
△허현도⁵² △형남두⁵² △홍현선⁹⁴

◆상대 △강종우⁶² △권영대⁵⁶
△권영진⁵⁸ △권혁조⁵³ △권혁태⁴⁹
△김광옥⁷⁰ △김기휘⁶⁶ △김두산⁵⁷
△김선정⁵⁴ △김성주⁵⁵ △김영하⁶¹
△김용민⁷⁰ △김용은⁵³ △김유길⁴⁴
△김창호⁶¹ △김한오⁵³ △김홍준⁶¹
△박명식⁵⁹ △박해용⁵⁶ △배지열⁵⁰
△백운생⁶² △변원옥⁴⁹ △송재관⁶⁶
△신인수⁵³ △심준보⁵⁵ △안홍지⁶¹
△연건호⁶⁶ △오기화⁵⁷ △유근성⁶⁶
△유재윤⁶⁸ △윤영원⁵⁵ △윤정희⁵⁴
△이기철⁵⁵ △이기홍⁵⁰ △이상호⁵⁷
△이성위⁶¹ △이성재⁵³ △이영일⁶⁰
△이용기⁵⁷ △이재환⁶² △이정권⁵⁷
△이종명⁷⁰ △이택섭⁵² △이호철⁵⁷
△장기제⁶³ △전추부⁶² △정광홍⁵⁷
△정봉수⁶⁶ △정상진⁴⁹ △정세진⁵³
△정형진⁵⁷ △조관호⁵⁶ △조선웅⁵¹
△조성일⁶² △조성진⁵⁵ △조흠원⁶⁴
△최준철⁵⁹ △표학길⁶⁶ △허남린⁵³

◆생활대 △강창자⁵⁷ △곽현지⁰⁴

△권정현⁰³ △김나연⁹⁴ △김혜경⁸²
△박순이⁷⁴ △손희준⁷⁷ △원명심⁷⁵
△윤혜원⁸² △이규진⁵⁸ △이미세⁷²
△이용호⁷⁸ △이재우⁷⁶ △이정자⁷⁷
△이정호⁹⁸ △이지수⁰⁰ △임인순⁵⁸
△전상숙⁸¹ △전혜정⁰⁵ △정정기⁹⁰
△조혜경⁷⁰ △최윤정⁸⁴

◆수의대 △김경휘⁵⁶ △김만영⁵⁰
△김재하⁴⁹ △김재훈⁸² △김정근⁵⁰
△김종면⁵² △박선규⁶⁰ △박승도⁶⁶
△박전교⁷⁴ △방호백⁵⁵ △서창우⁶³
△석호봉⁶³ △송영길⁵⁷ △안재훈⁰⁷
△우영제⁶⁴ △유병문⁶⁷ △윤태결⁵⁸
△이관철⁶⁵ △이문성⁶⁰ △이생근⁷⁸
△이영득⁶³ △이중희⁴⁹ △이학범⁰⁶
△임춘기⁷⁷ △조광영⁵⁴ △조기형⁴⁹
△조재기⁸¹ △한인식⁶⁴ △허정희⁶⁰
△홍상희⁸² △홍소균⁰¹ △홍중수⁵⁵

◆약대 △강창율⁷³ △김경욱⁶⁴
△김계영⁵¹ △김미희⁸⁴ △김병규⁶⁸
△김삼영⁵⁸ △김상년⁵⁹ △김양숙⁸⁴
△김의영⁸⁰ △김장숙⁵⁸ △김정주⁵⁹
△김휘배⁶⁵ △나례연⁷² △류한호⁶⁰
△박경렬⁶⁹ △박규호⁵⁴ △박문식⁵⁷
△박정희⁵¹ △박창규⁵² △배영자⁶⁵
△배옥남⁹⁵ △배종철⁶⁹ △송지선⁰⁹
△송희성⁶⁰ △안삼문⁴⁹ △양승국⁵³
△목치완⁵⁵ △윤광수⁶⁹ △윤미향⁸⁸
△이강영⁵⁷ △이경재⁷⁵ △이문형⁴⁷
△이수련⁰⁵ △이영태⁷⁰ △이해빈⁵⁸
△이훈자⁵⁶ △정민익⁴⁷ △정윤희⁹²

△조경호⁹⁴ △조철원⁵⁷ △최기철⁵³
△최수영⁷⁹ △추민정⁰⁵ △한은아⁹¹
△홍순억⁵⁸

◆음대 △강평숙⁵⁴ △김기홍⁸⁰
△김난아⁹¹ △김상진⁰⁷ △김서영⁰⁷
△김순옥⁷³ △김이림⁰⁰ △김영희⁵³
△김현희⁰⁷ △김홍박⁰⁰ △문영애⁶⁵
△박수전⁷¹ △박정배⁵³ △서은령⁸⁰
△안화영⁰⁵ △유화자⁵⁹ △이강은⁰²
△이기원⁴⁹ △이민나⁰⁰ △이소민⁰⁶
△이시현⁸⁹ △이영자⁵⁶ △이용식⁸⁵
△이정미⁸¹ △이정현⁹⁷ △이종석⁷²
△임동창⁶¹ △정락복⁷³ △정지인⁹⁷
△조가현⁷⁵ △조윤경⁹⁵ △채완병⁵⁸
△최영택⁷⁴ △최윤정⁹² △홍부자⁶⁰
△황영기⁸²

◆의대 △강충원⁹⁹ △고재균⁵⁰
△구분희⁵⁴ △권선주⁹⁴ △김광모⁰⁷
△김동완⁸⁹ △김동윤⁷⁶ △김성호⁰⁷
△김승철⁸⁶ △김정수⁶⁸ △문 형⁶⁰
△박소은⁰⁷ △박진홍⁹⁶ △박형종⁵⁰
△변종훈⁶⁹ △서정기⁶⁷ △송민준⁵⁷
△신상만⁶¹ △신준우⁷⁷ △안용태⁶⁹
△양송이⁰⁷ △여영호⁶⁰ △오석환⁴⁵
△유영해⁴⁸ △유종환⁹⁶ △윤경선⁶³
△이기주⁸⁵ △이봉재⁷² △이상철⁷²
△이승신⁹⁰ △이언복⁵² △이원기⁵⁶
△이인영⁵¹ △이재관⁷¹ △이재식⁸¹
△이재화⁰⁶ △이정상⁶⁰ △임경환⁰¹
△장수진⁰⁶ △장우현⁵⁰ △전동수⁴⁴

△전형경⁸⁸ △정용인⁶⁸ △정의흥⁷⁵
△정인희⁷⁰ △조병주⁴⁶ △주정화⁵²
△최현규⁵² △한정규⁹⁸ △홍승인⁷⁹
△홍혜경⁹⁷ △황순옥⁷²

◆치대 △고영식⁶⁸ △구옥경⁶²
△김강용⁷⁹ △김공배⁵⁸ △김길태⁶⁵
△김민석⁵⁶ △김종배⁵⁸ △김종화⁹⁹
△김철위⁵⁷ △김태일⁷⁵ △목길수⁷³
△민기주⁸¹ △박기욱⁴⁹ △박승오⁶²
△박연천⁷² △박용세⁶⁰ △박용학⁵⁸
△백정화⁸⁶ △상기증⁵¹ △서상주⁵⁶
△서운석⁷² △설창환⁶⁷ △손오영⁵⁴
△손화진⁶⁴ △안병관⁵² △안복훈⁸⁰
△안성모⁶⁸ △안순찬⁸³ △양재희⁷⁵
△임인웅⁷⁸ △오성진⁷¹ △우형식⁵⁹
△유동수⁵² △이공림⁷⁰ △이교인⁶⁵
△이민희⁸³ △이민규⁷⁶ △이병윤⁵³
△이상신⁵⁶ △이성철⁷⁰ △이성호⁷⁵
△이수연⁰⁰ △이영애⁵⁸ △이장훈⁵⁷
△이정식⁵⁵ △임광수⁶⁰ △임달수⁵⁴
△장인철⁷³ △정관희⁶¹ △정상일⁹¹
△정평구⁵⁸ △조영선⁵³ △조창홍⁴⁶
△주광섭⁷³ △차봉익⁶⁹ △차영남⁶⁷
△최남섭⁷³ △최봉식⁷⁰ △최재환⁴⁷
△하상완⁶⁴ △한충일⁷⁸ △함병도⁷⁵
△현기용⁷⁷ △호창진⁵⁵ △홍성익⁵⁴
△홍윤기⁷⁹ △황정일⁶⁴

◆대학원 △가순일⁹⁴ △권영신⁹⁵
△김기용⁸³ △김선대⁸⁴ △김윤자⁸³
△김재웅⁷² △박철호⁸⁴ △손상익⁸⁵
△신용목⁸² △안혜경⁰⁰ △이범걸⁸²

△이종호⁸⁷ △이혁구⁸⁶ △정정진⁷⁷
△최천석⁷⁷ △허찬수⁷² △황종로⁸⁰
◆경대원 △권영천⁶⁶ △박영휘⁹⁰
△신길수⁶⁸ △유민철⁷¹ △유재형⁹¹
◆MBA △김지은¹⁰ △박광규⁰⁹
△박영복⁰⁹ △봉한중⁰⁹ △이희은⁰⁶
◆교대원 △김충기⁶⁴
◆국대원 △강민정⁰⁹ △권경아⁰⁷
△김지은⁰⁷ △조현정⁰⁹ △황금빛⁰⁶
◆보대원 △경광현⁷⁶ △권영호⁷¹
△권오규⁶⁹ △김남주⁶⁶ △김윤영⁹⁸
△노재영⁶⁵ △문성환⁹⁵ △박덕성⁷⁵
△박승기⁸² △박예나⁰⁷ △서수라⁰¹
△신기준⁶⁴ △오세민⁶⁷ △유일준⁷⁴
△이민철⁹⁸ △이양재⁶¹ △이현영⁰³
△임인수⁸⁴ △장규진⁰⁴ △정두채⁸⁰
△정상호⁹⁹ △최혜정⁷⁹
◆사대원 △이기영⁶⁹ △이진강⁶⁸
◆신대원 △김두근⁷⁸ △변정민⁷³
△유종일⁷²
◆행대원 △김명진⁶⁷ △김용국⁷⁴
△김정중⁹⁴ △김한곤⁷¹ △박성열⁹⁰
△성낙승⁶⁹ △심오택⁸¹ △이계문⁹⁰
△이대복⁷⁷ △이석암⁷⁸ △이주석⁸⁴
△이창희⁸² △임동완⁰⁰ △채양이⁸⁶
◆현대원 △강은순⁷⁴ △고성하⁷⁷

△이대혜⁰⁴ △이동관⁰³ △이춘택⁷¹
△전상훈⁸³ △정재우⁰⁹
◆AMP △강수아⁷⁰ △강진경⁶⁵
△강현구⁶⁹ △고시목⁸ △구기인⁶⁵
△구임식⁷⁰ △권교택⁵⁸ △권석우¹⁵
△김 반⁴⁶ △김경환³¹ △김동해⁶²
△김병국⁵¹ △김선홍¹⁴ △김승호²
△김영동²¹ △김우겸⁷¹ △김우전⁷
△김일기¹⁷ △김필수²⁵ △김혜순⁷⁰
△문만수³² △박덕진⁶⁷ △박세영¹³
△박영노⁴⁸ △박영수³³ △박재상⁶
△박준택⁷⁰ △박철홍⁵¹ △박홍래¹⁰
△박희갑⁶⁰ △배신호³⁴ △배용수⁶⁹
△백석기²⁷ △서재희²⁵ △신명철⁸
△신용무²⁶ △안갑원³⁴ △안기욱¹⁶
△염경택⁷¹ △우태명⁵ △유영결²⁶
△유한섭²³ △윤종대⁵² △이덕수⁷¹
△이번우⁵² △이상택⁴⁰ △이성섭⁴⁶
△이영희³⁰ △이원구⁵⁰ △이장한³⁷
△이종철¹⁰ △이종호⁷¹ △이찬국⁴⁶
△조대현⁵⁸ △조두희²⁹ △조문규⁵¹
△조은상⁴⁵ △조창식⁴⁷ △진성섭¹⁰
△천병섭¹⁰ △최경희³⁸ △최현석⁷¹
△허현영⁵⁷ △함세영¹² △허대범²⁸
△허일회⁶⁸ △황규홍⁵⁷
◆AIP △고귀선¹⁹ △고형석²¹

△김기주³⁸ △김봉국⁴⁵ △김선경⁴¹
△김영선⁴² △김종필⁴⁰ △김학규²⁶
△나기준⁴⁵ △류원우⁴⁴ △민병주⁴⁵
△박기상¹³ △박명규⁴² △박영기²⁹
△박준호⁴³ △박현택⁴⁵ △박형국¹²
△배주호⁴³ △백경흠²³ △선상진⁴⁵
△신성기¹⁴ △염석훈⁷ △오태호³³
△원종웅⁴⁵ △유영완¹⁷ △유은목⁶
△유재경³⁵ △이상윤⁴⁵ △이상호⁸
△이은택⁶ △이인자³¹ △이중기⁵
△이천우¹³ △이태화¹⁶ △임은재⁴⁵
△전혁수⁴⁵ △정하결⁴⁵ △조종제¹⁴
△조창식⁴⁵ △진순오⁴⁵ △최배진¹⁵
△최성호³⁵ △최원태²⁶ △최재영¹¹
△탁구현⁴⁵ △한옥문⁴⁵ △한재희⁴⁵
△황교선⁵ △황기인¹⁰
◆ACAD △강경보²⁰ △강연욱⁶⁸
△고재정³⁰ △김상철⁵⁸ △김영성⁷¹
△김진태²⁷ △김하준³⁸ △김현수³⁰
△노재우¹⁶ △문동명⁴⁴ △박노석⁷¹
△박대열⁵⁸ △박만윤⁴⁰ △박선만²⁵
△박형구⁷² △서정도³⁵ △송원순⁷²
△신상훈⁴⁷ △안경재⁷¹ △안인순⁵⁵
△오시철⁷ △유갑중²⁴ △유재만¹⁹
△윤대식¹⁰ △윤춘근¹³ △이문용²⁷
△이영수⁴⁸ △이종성³³ △이종욱⁷²

△이희수²¹ △장기윤⁷² △장해익³⁴
△조강호³⁷ △조장연⁷² △천세욱⁹
△최원식⁷²
◆ABP △강구현³⁵ △김영수²⁶
△김정탁²³ △김희재³⁷ △남 욱²³
△류광하⁷ △박길태¹¹ △박영기²⁵
△백형욱³⁶ △소상국³⁸ △양종하¹⁹
△이대엽²⁸ △이무성³⁸ △이영진⁵
△이태종³⁸ △황세영³⁷
◆SGS △권오신⁵ △김봉규²⁵
△손정호¹⁰ △손창민²⁴ △윤 건⁴
△이경민¹⁹ △장태복⁴ △최상석²
△최송휴²²
◆CHCN △이서현⁵ △정경란⁸
◆APC △김상규⁶ △김정행⁵
△박대호⁴ △전관석¹
◆HPM △권용준²⁷ △김명중⁶
△김문규²⁷ △김보연²⁶ △김용돈²¹
△김재중²² △김학기¹⁶ △박태화²⁰
△서정식²⁷ △안병기²³ △이석기¹⁴
△이영태¹⁴ △정동윤⁹ △정수경²⁶
△정유석²⁷ △정준원⁹ △정지문¹⁴
△조동순²⁷ △조용선¹² △차주흔²⁵
△채상식¹⁷ △최낙원¹⁶ △최병덕⁸
△현대우¹ △황태용²⁶
◆AMPP △김진호¹⁰ △여상복¹¹
△홍 근⁷ △홍석우⁹
◆AIC △구관서²⁸ △김민철³¹
△김장경³¹ △김재평³¹ △김충근²⁷
△김택근¹³ △남호연⁴ △동상태¹⁰
△박철민³¹ △방효민²⁹ △백종욱²⁹
△신웅식³⁰ △안병석³¹ △왕진원¹¹
△임상선³¹
◆AFB △김용식⁷ △김해숙⁹
△박상택³ △박찬현¹⁰ △우용석⁹
△이영규⁷ △이화식⁹ △장세영⁸
△조현종⁹ △최기문⁹ △최춘선⁷
◆AMPFRI △유재만² △이강우⁹
△임한택⁶ △조형찬¹¹
◆ACMP △김정민⁵ △나익순⁶
△남순우³ △박정호⁷ △우순곤⁷
△이정현⁵ △임동호⁷ △장진근⁴
△정해철⁷ △하용환⁵
◆FIP △고영수² △김종준²

△정재익²
◆GLP △강호길²³ △김광철²³
△김성훈¹⁸ △김영민²³ △김영찬¹⁸
△김윤태²² △김인자²³ △김정규²³
△김종길¹⁹ △김주식²³ △김태형⁹
△마명욱²³ △박필선²³ △방관수²³
△백영준¹⁹ △신인승²³ △연건희⁴
△오택상²³ △유운산¹¹ △윤경상²²
△이대엽²³ △이영수²³ △이창의¹⁴
△이형석²³ △이희준¹² △임군득²³
△정구점²³ △정종원¹⁷ △정진구²¹
△정태현¹⁰ △최길운¹⁶ △허영무²³
◆ALP △김호동⁵ △문훈숙¹²
△박진현⁶ △변 강² △우동혁¹³
△윤태석⁹ △이창의¹⁰ △정재흠¹²
△차원진³
◆SPARC △구제병¹⁶ △김용수²
◆AFP △김문환⁸ △이창식⁶
△정일채⁸ △진화근⁸
◆ASP △강대승¹⁵ △김덕수²⁰
△김원일¹⁹ △김정오²¹ △노경학²¹
△박상문²¹ △박승구³ △성순경¹⁰
△송희원¹⁰ △심 실²⁰ △오용환³
△정동식²¹ △채수철¹⁵ △최종혁¹²
△한기운¹⁹
◆IFP △김진동⁵ △박수찬⁵
△이성건² △이찬호² △조규훈³
△최귀학³
◆BCP △김한기³ △문석용⁶
△박 찬² △윤여송⁷ △최수일¹
△황해령⁷

분 담 금

△오사카지부 1천달러

9·10월계 : 49,700,000원
평생회비 : 46,430,000원
입 회 비 : 1,150,000원
총 계 : 963,288,257원

흠커밍데이 협찬금

(일금 10만원)

◆인문대 △김동철⁷⁸ △류 진⁷⁸
△이재용⁸⁷
◆사회대 △임주현⁷⁹ △조병철⁷³
◆자연대 △이도원⁷¹
◆간호대 △김복자⁷²
◆경영대 △김 신⁷⁵
◆공대 △강 민⁷⁰ △강광연⁶⁰
△강남식⁷³ △강인권⁷² △경세호⁵³
△고정식⁷³ △김경진⁵⁹ △김기남⁷⁷
△김성중⁵⁹ △김성철⁷³ △김윤규⁶²
△김장연⁷⁶ △김준언⁷¹ △김진범⁸³
△김태준⁵⁷ △남원식⁷⁰ △명태현⁴⁶
△백형배⁴⁷ △설영화⁶⁵ △손우태⁶⁵
△송기덕⁵² △신현우⁶⁶ △안경수⁷⁰
△안상형⁶⁹ △오원석⁷¹ △이근명⁶³
△이돈주⁷⁵ △이상운⁷⁰ △이익용⁵⁵
△이재건⁵⁷ △이정옥⁵³ △이진형⁷⁴
△이창갑⁴⁶ △이창호⁵⁵ △정연세⁵³
△정택택⁷⁴ △제해현⁶⁵ △조정남⁶¹
△주영재⁷² △최종명⁵⁶ △추현출⁵⁵
△하준환⁵¹ △홍광표⁵⁴
◆농대 △권형욱⁸⁸ △김경하⁷¹
△김남용⁵³ △김영섭⁶⁵ △김용구⁵⁷
△김정복⁵⁹ △김진석⁶⁹ △문현팔⁶⁴
△박래경⁵¹ △박수복⁵⁶ △신명철⁶³
△유호섭⁷³ △윤희진⁶³ △이재창⁵⁷
△이정호⁷¹ △정진구⁶⁵ △홍형홍⁶²
◆문리대 △고영소⁵⁶ △고정택⁶²
△김승국⁵⁶ △김일환⁶⁴ △김형오⁶⁷
△박건우⁶¹ △박남훈⁶⁸ △박영혜⁶¹
△박종오⁵⁵ △신동우⁷¹ △신정용⁶¹
△염병윤⁶⁰ △오인섭⁶⁰ △유동주⁵⁴
△유보일⁶⁰ △이대승⁶⁶ △장희익⁵⁷
△최병두⁵⁴ △한갑수⁵² △홍두표⁵⁵
△홍성관⁶³ △황보순⁵⁷
◆미대 △김순자⁶² △이강소⁶¹
△이병석⁵⁸ △전영철⁵³
◆법대 △김대성⁸¹ △김상수⁶⁹

〈10월 5일 이후 출연자〉

△김상희⁶⁹ △김의재⁵⁶ △김인호⁶⁰
△김일권⁶⁴ △김정술⁶⁶ △김창복⁵¹
△노신영⁵⁰ △류기홍⁵⁸ △박수복⁷⁷
△박영수⁵² △박재경⁵⁷ △박철근⁵⁵
△성백현⁷⁸ △신명중⁷⁶ △유석원⁸²
△유인익⁶¹ △유흥수⁵⁸ △이문호⁶⁰
△이순중⁶² △이영기⁷¹ △이현범⁷²
△임태유⁵⁹ △정성진⁵⁸ △정용인⁶⁰
△정은구⁵⁸ △정한상⁵⁰ △조병현⁷⁴
△채재익⁵⁷ △최상욱⁷⁹ △최정운⁷³
◆사대 △김영지⁶⁸ △김정홍⁵⁷
△김충언⁵⁸ △김하준⁷³ △민흥기⁵⁹
△박 용⁵⁹ △박규홍⁶⁹ △박진구⁵⁶
△변재익⁶⁵ △성 현⁶⁹ △우근용⁶⁵
△이광복⁶⁵ △이광희⁶⁶ △이유희⁶⁴
△이인규⁵⁹ △이춘구⁵⁴ △이현외⁵⁴
△이희호⁴⁶ △인병식⁶¹ △조길준⁵⁶
△최용준⁶¹
◆상대 △강재경⁵⁷ △강주석⁶¹
△구정회⁵⁷ △김동범⁶⁴ △김성규⁵⁷
△김승환⁶⁷ △문운용⁶⁰ △박 철⁶⁴
△박길상⁶⁸ △박영도⁵⁸ △변창기⁵⁴
△송인상³⁵ △심재선⁵⁹ △안재동⁶⁰
△안재전⁵⁶ △오수길⁶³ △유석기⁵⁷
△이관규⁶¹ △이근영⁵⁵ △이대원⁵⁹
△이수익⁶¹ △이승구⁶⁰ △장병섭⁴⁹
△정홍술⁶⁷
◆생활대 △서병숙⁵⁵ △최순옥⁶¹
◆수의대 △김건호⁷⁰ △신현일⁵⁷
△양창근⁷⁶ △윤희중⁵⁴ △정영채⁵⁶
△조명래⁷⁰
◆약대 △김종서⁵⁶ △김진우⁵⁴
△문승만⁵⁶ △박종길⁷¹ △이경수⁶⁶
△이광수⁶³ △차기현⁵⁹ △한규홍⁶⁴
◆음대 △차정현⁶⁷ △황화자⁶⁰
◆의대 △고원순⁶⁸ △김미나⁸³
△김민석⁹¹ △김세경³⁹ △김중식⁵⁹
△김찬영⁴⁶ △도상환⁷⁹ △박동현⁷⁰
△박문갑⁴⁶ △박인원⁷⁶ △서교일⁷⁸
△신순철⁶² △신영배⁵⁵ △위정일⁶³

△이원로⁵⁶ △이종철⁶⁷ △임용철⁸²
△장운석⁴⁹ △정규병⁶⁵ △조경환⁵²
△최규완⁵⁵ △한두진⁵⁰ △현석산⁶⁹
◆치대 △강성현⁶⁹ △김선영⁷⁷
△김세진⁶⁷ △남동석⁵⁹ △송영호⁵⁷
△신현철⁷⁴ △신현철⁷⁴ △이윤상⁵⁹
△정종선⁵⁷ △최순철⁷³ △하해근⁸⁵
△허 택⁷¹
◆대학원 △김준호⁸⁶
◆경대원 △조현국⁷³
◆보대원 △김상욱⁹⁶
◆사대원 △김창식⁶⁷ △조무제⁶⁵
◆행대원 △김상영⁶⁵ △이두현⁷⁴
△이주성⁸² △장주호⁶⁹
◆AMP △고희선⁴¹ △곽상엽³⁴
△김상열⁵⁰ △김종영²⁸ △성영창²⁶
△이영열⁴⁶ △장기봉⁵⁹ △전용배⁵⁷
△정광훈⁴⁷ △조성환⁴⁸ △홍성호⁶⁶
◆AIP △노영희⁴⁰ △송무현³⁷
△심종택¹⁵ △이강기³⁷ △이종철⁴¹
△전재홍¹⁷ △조인형¹³ △최창식¹¹
◆ACAD △권정신² △김성은³⁰
△남상준⁴⁵ △노희찬³³ △조봉현⁵⁵
△최종욱²⁰
◆ABP △김성일¹⁵ △이관철³
◆SGS △김광두³ △윤주선⁴
△이창섭⁷
◆APC △김형락³
◆HPM △박만식⁵ △송정순³
△윤덕보¹ △최서형¹
◆AMPP △이상만⁷ △장철순⁷
◆AIC △박실상⁹ △장낙진¹³
◆AFB △김종복¹ △김종철⁹
△오춘자¹⁰ △윤상배¹⁰ △윤환권⁹
◆AMPFRI △김복희³ △윤환식⁴
◆ACMP △김정식³ △박상남³
◆FIP △임광빈¹
◆GLP △김명자¹³
◆ALP △서일성⁶ △황은연¹²
◆SPARC △김인권¹⁶ △노은식¹⁷
△석종호¹⁹ △정창무¹³
◆AFP △이돈구⁴
◆ASP △장기원⁵

장학빌딩 건립기금

〈추가 납부 및 수정자〉

◆2억원
△김문현 (상대58)
◆1억3천1백만원
△김일환 (문리대64)
·김낙영
◆1억1천1백25만원
△악대동창회
◆1억원
△이금기 (약대55)
△조경일 (약대64)
◆6천만원
△장명욱특지
◆5천만원
△이세영 (약대57)
◆3천만원
△이광식 (약대66)
◆1천5백10만원
△이수홍 (문리대49)
·황영금 (음대50)
◆1천10만원
△지현석 (약대56)

◆1천만원
△간호대동창회
△正英會
◆5백만원
△명호근 (법대61)
◆2백만원
△유지열 (사회대84)
◆1백만원
△박희태 (법대57)
△이영석 (SPARC4)
·강정인
◆30만원
△윤순녕 (간호대69)
◆10만원
△오인영 (사대51)
△이낙영 (공대66)
△임주현 (사회대79)
△정찬모 (사대66)
△정태훈 (사회대92)
△현창택 (공대76)